

## Contents



### issue

기획특집	욕망찾기 초급과정 _ 왜 욕망을 이야기하는가?	2
------	---------------------------	---



### info. in common

쟁점과 입장	여성운동단체에서 여성운동가는 누구인가?	6
나눔터 칼럼	그들이 진부할 수 있는 이유_일상의 폭력	8



### survivor' s voices

상담실에서	컬럼 : 상담원교육	10
생존자의 말하기	수의 이야기(연재 5th) _ 생일선물	13
	데이지 이야기 _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18
	“작은 말하기”	22
열린터 생각	집에 관한 열린터인들의 수다	24



### edutainment

성문화읽기	〈내 남자의 여자〉를 보는 여자	26
몸이야기	수영장 생리 할인 및 생리 공결제 논란에 대해	28
만나고 싶었습니다	‘너머서(Beyond It)’	30
이런 프로그램	미술치료	32
소모임 생각	소설읽기모임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	35



### report & membership

원대상담소	원대 상담소	38
사업 review	하담 이관 _ 하담 3년 돌아보기	40
	25기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44
들고나기 인사	하진옥 새 책임상담원 선생님	45
사업 preview	10대 여성 다름몸되기 훈련 : 당신의 시선을 넘어서	46
회원소식	기부UP~ 기분UP~	48



## 욕망찾기 초급과정

### “왜 욕망을 이야기 하는가?”

◎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원사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 당시 ‘성폭력’이란 말조차 너무나 낯설었던 시기에 이를 정면에 내세워 간판을 달고 출발한 당돌한 여성운동단체였다. 당시 상황에서는 이와 같이 성폭력으로 명명하는 것 자체가 유의미했고, 그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여러 메시지를 전달하는 급진적인 행위였을 것이다. 그리고 90년대와 2000년대는 반성폭력운동의 역사에서 매우 활발한 활동과 담론이 형성된 시기였다. 성폭력특별법 제정이나 기타 필요한 정책도 마련되었고, 각계각층의 시스템에 성폭력 개념이 개입되었다. 따라서 성폭력이 무엇인가?란 정의에 대한 토론이나 피해자 관점, 피해자가 생존자로 명명되기까지의 변화, 직장내성희롱, 운동사회성폭력 등 다양한 분야와 주제로 분분했던 시기였다. 그리고 어느새 성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익숙한 용어가 되었다.

그러나 그만큼 성폭력이 줄어들었을까? 의아하지만 그토록 여성계가 열심히 활동하고 성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전국적으로 활동을 펼쳤지만, 성폭력은 크게 줄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수준도 그동안의 활동에 비해 크게 변화의 성과를 만들지 못한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은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며, 내 주변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알게 되었으나, 가해자입장의 담론은 여전히 강세다. 오히려 가해자담론이 약화되지는 않은 채 다른 방향으로 더욱 강화된 부분도 있는 것 같다. 한동안 많은 남성들이 자신이 가해자로 대우받는 것 같으며 작게 투덜거리기만 하더니, 이제 마치 그동안 억눌려 말을 못하기라도 한 듯, 거침없이 편



작업에 열중하는 참가자들의 모습 ▶

견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고 있다. 명예훼손이니 무고니 피해자에 대한 역고소도 뻔뻔스럽게 하고 있다. 성폭력의 문화와 사회적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여성들에게 남성인 자신도 그런 문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일이며 그래서 또 다른 피해자라며 억울하단다. 정말 적반하장이다. 최근 인터넷 댓글을 보면 피해의식으로 사로잡힌 마초들의 행렬이 눈에 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무엇보다 우리 여성들의 모습이다. 성폭력을 처음 문제 삼던 시기에 사회적으로 강조되었던 ‘순결’ 맹신으로 여성들은 성폭력피해의 아픔 이후 자신의 삶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극단적 선택을 강요당하기도 했었다. 성폭력피해가 마치 몸이 더럽혀진 것처럼 인식되었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의해 오히려 비난받고 위로받지 못한 채 외면당했던 것이다. 순결에 대한 맹신은 가부장제가 남성 중심의 대를 잇는 개념에서 여성에게 강조한 정치적, 사회적 맥락이 있음을 우리는 계속 지적해왔고 여성의 순결이 과히 그러한 성폭력으로 훼손되는 것이 아님을 설파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와 같은 순결망령은 사람들의 머리 속에서 떠나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전통, 가족이 무너지기라도 할 듯 노심초사다.

21세기 사회각계의 변화와 우리 문화는 발전해왔고 여러 복잡한 갈래들로 분화되고 새롭게 형성되었지만, 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상하리만큼 어느 지점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운동의 방향을 완전히 선화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 성폭력의 실태를 알려냄으로써 사회전반의 성폭력불감증을 해소해보려는 노력은 여성들의 성경험이 성폭력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과장되게 인식되면서 결과적으로 더욱 보수적인 세력들의 먹이가 되어왔던 부분도 있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의 하나로 우리는 피해자들이 힘을 낼 수 있는 방식, 여성들이 즐거울 수 있는 방식의 운동으로 조금씩 전환하면서 여성주의 자기방어를 중요 활동으로 여기고 활동한지 벌써 4년째다. 뿐만 아니라, 매해 7월 여성들이 밤길을 되찾기 위해 거리를 확보하는 달빛시위도, 또한 아픈 경험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생존자들의 재미있는 스토리, 유쾌한 복수극, 가해자를 뛰어넘는 피해생존자의 삶의 얘기 등 다





한 참가자의 자화상 콜라주

양한 차원의 내면의 힘을 발견한 생존자말하기대회도, 이 모두가 우리 안에서의 성폭력담론을 조금씩 달리해나가면서 진행해왔던 새로운 방식의 운동인 것이다. ‘욕망찾기 초급과정’은 이러한 맥락의 연속선상에 있다.

욕망? 본 상담소가 말하는 욕망은 무엇일까? 앞서 말한 운동의 맥락 안에서 생겨난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왜 상담소는 욕망을 의제화한 것인가?

‘어떤 욕망이냐?’ 라는 욕망의 내용보다 ‘욕망하는 혹은 할 수 있고, 그 욕망을 다룰 줄 아는’ 우리 자신에 초점이 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 중 하나로 ‘욕망’과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욕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표현하고 조정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욕망은 식욕, 성욕, 소속욕, 성취욕, 애정욕, 권세욕 등 다양하다. 그동안 본 상담소가 섹슈얼리티의 특성, 형성과정, 권력관계, 표현되는 방식, 관계맺음 등의 문제를 제기해오고 성폭력이슈를 갖고 활동해온 만큼 ‘욕망찾기 초급과정’에서 성욕과 분리하여 욕망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욕망을 성욕에 한정하지는 않았다. 아니, 사실 그게 어떤 욕망이든 그건 어쩌면 상관없는 일이기도 하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욕망이냐?’라는 욕망의 내용보다 ‘욕망하는 혹은 할 수 있고, 그 욕망을 다룰 줄 아는’ 우리 자신에 초점이 있다. 욕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는 사회적으로 주체적인 혹은 성숙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의미한다. 많은 경우 성인남성에 의해 생성되고, 조정

되고, 통제되는 욕망은 여성을 비롯하여 청소년/년 혹은 어린이, 장애인, 이성애자 외의 성적취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계층과 부류의 사람들의 입장을 배제했다. 이성애 중심의 사회에서 일부 성인 남성들에 의해 구성되고 허용된 것들이다. 따라서 ‘욕망하는 자’, ‘욕망을 찾는 자’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성인 남성 외에 그들의 욕망을 탐하는 자는 일탈을 의미하고 교정의 대상이 되거나, 정신과 치료를 강제 받았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으로 생각되는 이러한 욕망을 통제하여 많은 질서와 문화가 자리를 잡게 하는 것이 역사적 과정의 반복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욕망을 꿈꾸고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는다는 것은 엄청난 혁명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동안 내면의 힘을 찾는 프로그램들로 많은 여성들과 만났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새롭게 시작한 욕망찾기를 통해 우리는 내면의 힘, 나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찾아나가는 ‘여성’들의 모임을 꾸려 나가고자 한다.

#### 욕망찾기 초급과정 진행자들의 미니 인터뷰

##### “욕망찾기 초급과정에서 목표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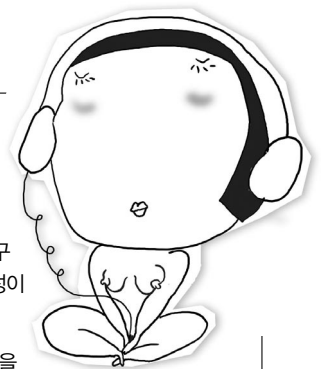
**로리** \_ 많은 여성들이 자기의 성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구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가 뭔가 꼭 찾아지지 않더라도, 뭔가 있다는 가능성이라도 볼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아니 될 거라 기대해요.

**지현** \_ 자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기에서 발견하면 좋겠어요. 느낌에 충실한 시간을 갖고, ‘느껴야 한다’와 ‘이렇게 느껴왔다’ 말고 ‘나는 현재 이렇게 느낀다’와 ‘나는 나의 느낌을 알 것 같다’ 정도... 이 프로그램을 함께하면서 느낌과 관련된 자기 과정을 함께 알아 가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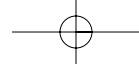
##### 상담소의 장기적 방향, 기대는?

**로리** \_ “아 이 프로그램! 성폭력상담소가 하지?” 이러면서, 성폭력상담소가 갖고 있었던 이름에 붙는 부정적인 것을 이 프로그램으로 좀 더 밝게 걷어낼 수 있었으면 해요. 그런 성찰프로그램의 하나로서의 욕망찾기로 그림을 잘 만들어 가야겠지요.

**지현** \_ 상담소요? ^^ 한쪽은 지지와 독려, 한쪽은 내공 프로그램,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여성주의 자기방어와 같은 내공 프로그램을 하면서, 말하기도 하고, 욕망찾기도 하면서 한쪽에서는 다독이고, 치유하고, 보듬고 그래서 그렇게 피해생존자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생존자를 충분히 배려하고 신경쓰고 케어하지만, 더 이상 여성들을 피해자화 하는 것을 지양하는 것으로, 여성들의 내면의 힘이 뭔가 살아가는데 자신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여성운동단체에서 여성운동가는 누구인가?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 박인혜

“여성운동에서 여성은 누구인가?  
여성운동에서 여성운동가란 무엇인가?  
여성운동단체에서 여성운동가란 누구인가?  
나는 여성운동가인가?  
여성운동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편집자주] 이 글은 2007년 5월 11일에 중앙대 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여성학회 연대위원회 집담회 "한국여성운동 20년, 여성운동에서 여성은 누구인가?"에서 발표되었던 글입니다.

그동안 여성운동 주체는 여성운동단체였다. 여성운동가란 단체의 일부였다. 여성운동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우리 운동이 발전한 시기는 근대의 형성(제도화)과 해체(세계화)가 동시에 이루어진 다중적인 시기와 일치한다. 우리 조직은 여전히 근대 조직인데 활동가는 이미 다중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여성운동단체는 유일한 여성운동 주체에서 주체들, 심지어는 비주체로 변했다.

그 영향으로 인해 운동가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 한다. 이는 조직과 개인의 정체성 혼란과 비전 부재, 조직과 개인의 비전과 욕구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직의 정체성과 목표는 변하지 않고 있는데, 운동가 자신은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이미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동가들 개인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다. 운동가란 사회변혁을 촉진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사회 변동에 영향을 받아 자기를 재구성하는 존재다. 그래서 여성운동이 위기라고 하는 발화는 여성운동가들이, 자신의 변화를 인식했다는 표현이기도 하다.

여성운동가란 무엇인가? 개인이 단체에 들어와서 여성운동가라는 정체성을 얻기까지는 몇 년의 세월이 걸린다. 여

성운동단체 활동을 통해 활동가들은 자신이 여성운동가라는 정체성을 얼마나 얻게 될까?(나는 이 글에서 활동가를 여성운동가의 전단계로 사용한다.)

여성의전화의 정체성은 주로 조직적 관점에서 형성되었다. 83년 상담소로 시작하여 87년에 여성운동단체, 회원단체, 95년에는 여성인권운동단체, 대중운동단체로, 2000년에는 지역운동단체로 전환했다. 회원들은 상담자원봉사자, 상담활동가, 회원활동가(상근활동가), 여성운동가로 정체성을 확립해왔다. 여성의전화는 상담을 주요 운동도구로 하기 때문에 창립 초기부터 상담가와 여성운동가 사이에 정체성의 긴장이 늘 존재해왔다. 이를 통합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왔지만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했다. 최근 2~3년, 나는 무엇이고 여성의전화는 무엇이나 하는 고민을 하는 활동가가 많아졌다.

다른 여성단체와 마찬가지로 현재 여성의전화 활동가들의 대부분이 90년대 후반 이후 활동을 시작한 사람들이다. 활동가를 구하기가 어려워 공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제도 속에서 활동하기 위해 사회복지를 공부한 경우도 많고 사회복지사를 공채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여성운동을 제도화 과정, 정부와의 관계로, 정부정책을 기능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많고, 상담소에서 일하는 것만으로 운동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복지기관인 줄 알

고 들어온 활동가들도 있다.

활동가에게 조직의 지향과 개인의 경제적 욕구는 양립할 수 없는 선택사항인 것으로 인식되고,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감(슈퍼우먼을 요구하는 사회)에 취업 준비, 공부, 취미활동 등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하고 있는 회원들을 보면서 활동가들은 막연한 불안감과 박탈감에 시달린다.

활동가들은 업무과중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여성단체 활동가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다. 반복되는 치루기식 사업을 해내면서 활동가들은 여성운동을 이대로 계속하면 나는 무엇이 될까를 심각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그도 여의치 않다. 우리 주변에 여성운동가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다양한 역할모델이 부족하다. 우리에게는 역시 제도화(제도정치인이 되거나 여성주의 지식을 가진 공무원이 되거나 체제와 제도 내 스태프 되거나) 모델밖에 없다. 이런 모델들은 대부분의 활동가들에게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요원한 것이다. 그렇다면 생활인으로 돌아갈 것인가, 힘들어도 신념을 가지고 전복을 꿈꾸는 소수가 될 것인가? 활동가에게 현신은 희생으로, 열정은 욕심으로 생각하는 가치전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정부 지원금을 받고부터는 제일 먼저 회원들과 활동가 사이에 위화감이 생겼다. 여성단체 활동은 유급의 상근활동가가 하는 일이 되었고, 회원들도 자원활동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활동가들은 자신의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단으로 여성운동을 하는 여성운동가가 아닌, 여성단체에 들어와서 여성문제를 배워서 회원과 피해 여성들을 대신해서 활동해주는 대행자가 되었다.

제도화 시대에 여성운동은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복제하는 것이 되었다. 어느 한 단체에서 사업을 만들어 내면 그대로 따라하는 식으로 여성단체의 차별성을 지워나갔다. 여성부에서 권익증진사업지침을 세워 내려 보내면 글자 하나 오차없이 그대로 해야 한다. 복제는 운동의 정신보다 형식에 관심을 갖는다. 운동을 상상하는 능력, 창의력, 절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치고 올라오는 반전의 힘, 사람들이 변화하는 활발한 과정, 이런 운동의 재미가 사라졌다.

활동가의 이직이 잦은 것은 적은 급여 때문이 아니다. 의사소통이 잘 안되고 갈등해결이 어려운 조직문화 때문이라는

것이 활동가들의 생각이다. 이런 조직문화가 만들어진 것 역시 제도화로 인해 자율적인 운동조직이 위계적인 기관으로 변모한 탓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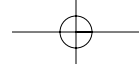
여성의전화는 자율적인 지역여성운동과 제도화된 상담소의 공존을 실험하고 있다. 그러나 젠더 과제들의 제도화가 촉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전국의 지부들이 일률적인 방식을 실천하기에는 자체 운동역량, 지역의 제도화 진척상황, 지역사회의 의식 등 각자가 처한 조건들이 너무도 다르다. 현실의 차이를 수용하면서 현실의 차이로부터 시작하여 그 차이를 넘어설 수 있는 방식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활동가들은 늘 나는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 하는 불확정성에 시달린다.

여성운동에서 '여성'의 하나는 여성운동가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사회에서 여성운동가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운동가들의 자기이해가 달라진 것도 사실이다. 운동가들이 자기확신이 약하면 사회의 시선에 흔들린다. 여성운동가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만들어가야 한다.

여성운동가는 단순히 여럿 중의 하나가 아니라 운동을 촉진하는 구분된 힘이다. 운동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사람에 대한 헌신이다. 동시에 자신에 대한 헌신이며 부단한 자기변화노력이다. 그 동력은 열정이다. 그 변화의 궁극적 방향은 사회변화에 있다. 그런 여성운동가의 모델을 나는 인도나 필리핀의 주민조직가들에게서 엿본다.

따라서 사람키우는 것이 운동이다. 여성운동을 함께 할 사람, 이어나갈 사람을 만들어내는 운동이어야 한다. 활동가만이 아니라, 여성 개개인들을 자기 삶을 변화시키는 운동가로 키워내야 한다. 여성단체는 공간적 구조물에서 여성운동가들의, 여성운동가들에게 힘을 주는 커뮤니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지역은 공간만이 아니라 사람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여성의전화는 제도화 논쟁을 통해 여성운동가를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인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운동에서 교육이 빠져 있음을 성찰하게 되었다. 그래서 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EILF라는 활동가 훈련 프로그램 만들어 진행하고 있다. 여성운동가를 키우는 조직-이것이 여성의전화의 새로운 사명이다.



## 그들이 진부할 수 있는 이유 - 일상의 폭력<sup>1)</sup>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윤상

**권**력관계, 상대방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폭력행동, 남성과 여성, 한 명의 가해자와 다수의 피해자, 피해자 비난, 은폐, 부인...

며칠 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된 W은행 여자 프로농구 전 감독의 성폭력 사건은 이런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내가 상담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성폭력 사건의 '전형적인' 모양새와 많이 닮아 있다. 사실 사기 수법과 같은 것은 하루가 다르게 교묘해져 그 수법의 전모가 드러나기 전에는 제 아무리 철저해도 속을 수밖엔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성폭력 가해자들은 서로 짜기라도 한 듯 어떻게 이렇게 유사한 수법으로 가해를 하고 그 가해행위를 무마하려고 하는지, 새로운 수법을 개발하려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이러한 폭력행위가 반복될 수 있는 것은 왜인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사회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이 어떤 차이를 갖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한다. 우리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종종 조기축구회 멤버들이 모여 축구하는 모습을 보는데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성멤버를 본 적이 없다. 아마 보았다면 이색적이었을 것 같다. 연예인들이 출연하여 입담을 경쟁하는 각종 토크쇼를 보면 남성 출연자들은 어떻게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에게 대쉬했는지, 어떻게 그 여성과의 키스 혹은 결혼에 성공했는지, 그 여성과의 낭만적인 연애에 자신이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재미나게 이야기한다. 여성 출연자들의 이야기는 주로 자신의 연애상대가 자신에게 어떻게 접근했는지, 그 사람과의 키스가 어떤 상황에서 느닷없이(남성답게?) 일어났는지(동시에 그것은 얼마나 낭만적이었던지), 자신이 그 남성과의 관계에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등으로 구성된다. 그저 자연스럽다.

드라마에서 일방적인 키스신은 로맨스고 남성다움일 뿐 성적인 폭력으로 묘사되는 일은 거의 없다. 여성이 경찰 강력반 형사로 출연했던 한 드라마의 마지막회는 참으로 의미심장했다. 거친 일을 해야하는 강력반의 여형사가 과거에 자신의 애인을 살해한 범인을 검거한 후 특별휴가를 받아서는, 평소에 하지 않던 화장을 하고, 원피스를 차려입고, 하이힐을 신으며 새로운 애인과의 데이트를 준비한다는 내용. 이 여성답지 않은 여성이 드디어 여성으로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은 교훈 그 자체였다.

그건 남성다운 행동이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폭력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그건 여성다움이지 수동적이거나 권리를 상실한 것은 아니라고,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성적이거나 낭만적이거나 지 거기에 권력과 같은 불순한 것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알려주는 다양한 일상의

텍스트가 앞에서 이야기한 성폭력의 구성요소들과 어떤 거리에 있는지 찬찬히 살펴볼 일이다.

나는 W은행 여자프로농구 박 전 감독의 성폭력 사건을 언론을 통해서만 접했고, 언론이 전하는 것 이상의 정보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제한된 지면에 전해지는 이야기만 가지고도 그 '전형성'을 이해하기에는 충분하다. 박 전 감독은 선수 기용권, 선수들과 매니저의 연봉과 보너스 지급 문제까지 책임지는 등 무소불위로 전권을 휘두를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으며, 감독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방 청소를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팀원들을 괴롭히는 '독재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전해졌다.<sup>2)</sup> 성폭력은 힘을 가진 자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자에게 행사하는 폭력의 하나다. 그 '힘'은 신체적인 힘일 수도 있고,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으로 가진 권력일 수도 있으며, 공식적인 형태일 수도 있고 비공식적인 형태일 수도 있다. '왜 호텔방에 갔냐', '왜 그 차에 탔냐', '왜 그 자리에 따라갔냐', '애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싫다는 소리 한 번 왜 못했냐'고 피해자를 탓하는 소리는 자주 들리지만, '팀에서 잘릴까봐', '괴롭힘을 당할까봐', '고용상의 불이익을 당할까봐',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문을 날까봐', '까다로운 사람으로 찍힐까봐'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그들은 이야기하다가 지쳐 포기했거나, 이야기 자체를 감히 시도조차 못한다. 우리 사회에는 그들 목소리의 자리가 이미 없기 때문이다.

박 전 감독은 '술에 취해 있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본 사건을 부인했다고 경찰 관계자가 전했다.<sup>3)</sup> 가해용의자가 이 진부한 '술공방'과 '부인작전'이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고 믿는 까닭은 무엇인가? 절도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용의자가 '술에 취해서 물건을 훔쳤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는 것을 우리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 술에 취해서 운전을 하다가 인사사고를 내거나 술에 취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것은 용서하기 어렵지만, 술에 취해서 일방적으로 타인의 성적 권리를 침해한 경우는 좀 사정이 다르다는 얘기인가?

우리 사회는 생명권이나 재산권은 그것을 소유한 개인에게 온전히 귀속된다는 것을 쉽게 인정하면서도, 성적인 권리에 대해서는 유독 '관계'나 '태도', '평소 행실' 등을 거론하며 멋대로 넘겨질기 일쑤다. 여성의 성적 권리는 온전히 여성 개인에게 귀속되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행실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타인의 관점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이미 공공연히 인정하고 있으니, 어쩌면 이 사회에는 남성의 언어로 구성된 성적인 행동만 있을 뿐 성폭력은 없는 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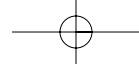
평등한 사회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의 자원을 공유하고 서로의 특성이 모두 '힘'이 되는 평등한 사회를 막연하게나마 그려볼 수 있다면, 이런 사회에서 감히 타인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이나 하는 행동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물론 그렇게 되기 전까지 더 이상 공인할 수 없는 그들의 권력 남용에 판지를 거는 통쾌한 반란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1) 위 글은 2007년 6월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2) 감독, '성추행' 반성문 쓰기도 '발뺌', 오마이뉴스, 2007.5.28

3) 전 국가대표 농구감독 성폭력미수 영장, 연합뉴스, 2007.5.29





## 25기 상담원 교육을 돌아보며

◎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이산

91년부터 시작하였던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이 어느덧 25기를 맞이했다. 여성운동가로서, 성폭력 상담자로서 활동해 온 많은 이들이 교육을 수료한 뒤에 각 분야의 활동가, 강사, 기획자로 이 교육과 함께 한다. 이번 25기 교육 역시 이전 교육을 수료한 뒤 상담소에서 일하고 있는 상담팀 활동가들이 기획하였고, 진행을 하면 할수록 성폭력 상담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준비하는 것이 즐겁고도 어려운 일임을 실감했다.

여성가족부 규정에 의해 정해진 법, 의학 관련 강의, 상담이론, 여성학개론, 실습 등의 분류는 있지만, 그 안에서 자세한 제목과 내용을 정하는 것은 진행자의 몫이다. 물론 고민에 고민을 더하여 짜낸 이전의 커리큘럼이 있지만, 교육이 진행될수록 다른 시도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교육 커리큘럼을 재구성, 또는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각 기관은 ‘우리는 성폭력상담을 하려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성폭력 상담을 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는 성폭력에서 어떤 주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점검하게 된다.

25기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을 앞두고, 커리큘럼을 다소 새롭게 꾸며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정작 교육을 진행하면서는 커리큘럼 조정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교육의 커리큘럼을 짜는 과정에서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13기 성폭력상담원교육 커리큘럼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고, 제목과 강사를 그대로 참고하여 배치하기도 하였다. 이 지면을 통하여 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

이번 상담원교육에서 가장 신경을 썼던 것은 ‘여성주의관점’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의 문제였다. 늘 입버릇처럼 쓰는 ‘여성주의상담’이지만 정작 그 내용을 교육과정으로 구성하기 위해 세부주제를 정하고 순서와 시간을 배분하는 것은 많은 고민을 따라오게 했다. 이번

상담원교육에서 가장 신경을 썼던 것은 ‘여성주의관점’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의 문제였다.



교육의 첫 강의는 전희경의 <여성주의:세상을 보는 관점>이었다. 여성주의가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말에 대해 여성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공유하기 위해서였다. 이는 예전 상담원교육에서 진행되었던 ‘우리 사회 속의 여성’, ‘우리 사회의 여성문제’ 등의 강의에서 좀 더 초점을 좁힌 것이기도 했다. 여성주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하기 전에, 여성주의 시각으로 발굴한 ‘여성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성주의라는 ‘관점’을 만나기 시작하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지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다.

또한 섹슈얼리티 전반에 대한 강의를 이전 교육보다 강화하였다. 섹슈얼리티 전반을 이해하여 그 그물망 위에서 성폭력이 튀어나오는 지점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성폭력 상담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가 가능하려면 섹슈얼리티에 대한 강의 관련 이론, 반성폭력운동에서의 쟁점, 워크숍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섹슈얼리티 관련 강의는 권김현영의 <가부장제와 여성섹슈얼리티>, <반성폭력 운동에서 성폭력 담론의 변화>, 정희진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이해 워크숍>이었다. 운동담론에 관해서는 19기부터 <성폭력추방운동의 성과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강의가 진행되었고, 현재까지도 <반성폭력운동 역사의 흐름과 과제> 등의 제목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섹슈얼리티 전반에 대한 강의를 이전 교육보다 강화하였다.  
섹슈얼리티에 대한 강의 관련 이론, 반성폭력운동에서의 쟁점, 워크숍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운동사를 돌아보는 것 이상으로, 여성운동 진영 안에서 다양하게 충돌하기도, 서로 변화하기도 하는 관점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더 풍부한 논의들을 소개하고 싶었기 때문에 담론의 변화 강의를 따로 개설하였다. 또한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워크숍 시간을 넣었는데 실제로 워크숍 형태로 진행하지 못하고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어 아쉬움이 남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권수현의 <가부장적 통념깨기>에서 기존에 있던 여성주의 이슈에 대한 강의는 성폭력에 대한 강의로 좀 더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했다. <동성에 바로알기>는 <이성애주의와 성폭력>으로 주제를 바꾸었는데, 이는 ‘동성애’라는 정체성에 대해 안다기보다 성정체성을 구분 짓는 이성애주의가 어떻게 성폭력 문제에 스며들어 있는지 보기 위해서였다. <장애여성폭력> 강의는 <장애여성인권>이라는 제목을 통해 장애/비장애에 대한 정상성 기준,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 문제 등을 좀 더 폭넓게 이야기하려고 시도했으며,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은 <상담을 통한 역량강화>라는 제목으로 재구성하였다.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은 상담소에서 점점 폭을 넓혀가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이자,



여성주의 상담에서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 내담자 역량강화에 대한 많은 이야깃거리를 던져 주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런 재구성이 가능했던 것이다.

커리큘럼에 대한 이런 저런 고민도 고민이었지만, 실제로 강의를 청탁하여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사실 커리큘럼을 짤 때 의도한대로 강의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지는 못하였다. 다행히 각 강사의 전문분야와 스타일이 모두 다르고, 강사끼리 서로의 분야를 알고 있는 덕에 내용이 겹치거나 하는 일 없이 짜임새 있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상담원교육 외에도 여러 업무를 맡고 있는 교육담당자가 여성단체 활동, 여성학 이론 공부, 다른 전문분야 활동 등으로 바쁜 강사가 강의 내용에 대해 섬세하게 상의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상의할 수 있는 시간도 시간이었거니와, 강의를 배치한 의도나 강의 세부내용에 대해 충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역량에서도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처음 기획을 할 때는 2~3강씩을 맡은 강사들과 함께 만나서 자문회의를 꾸릴 생각도 했었는데, 좋은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현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강의 하나하나를 배치할 때마다 염두에 두었던 교육의 기획 의도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든다.

상담원교육의 평가 중  
중요한 이슈는  
다양한 배경과 동기를 가지고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 간의 의사소통이었다.



이번 상담원교육의 평가 중 중요한 이슈는 다양한 배경과 동기를 가지고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 간의 의사소통이었다. 성폭력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경험과 생각이 다르고, 따라서 성폭력상담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상도 각자 달랐던 것이다. 또한 여성주의 관점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주제로 수업을 듣고 토론을 했기 때문에 입장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때로는 충돌하는 지점도 있었다. 자신의 입장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어떤 경험이나 성찰이 그 입장을 구성하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도 있는 순간들이었다. 그러나 교육생 대부분이 다양한 관점을 접하고 자신의 시각을 넓힐 수 있다고 평가한 것,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부장적 통념에 대해 다시 돌아볼 수 있었다는 소감을 쓴 것은 이 과정의 성과를 어느 정도 보여주었다. 물론 그 이면에 남은 더 깊은 충돌과 고민은 앞으로 활동을 이어나갈 교육생 각자의 과제이자 교육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상담소의 과제이다. ☀

**[편집자주]** 생존자의 목소리 코너는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투고로 연재 혹은 단회, 독자와 만남을 갖습니다. 글 보내주실 곳은 ksvrc@chol.com입니다. 이번 호에는 '水'의 연재수가 다섯번째 이야기에 더해 '데이지'의 트라우마 회복 이야기 그리고 작년까지 '성폭력생존자 말하기대회'로 연 1회 열리다가 올해부터 4월에서 10월까지 매달 열리는 '작은 말하기'에 함께한 참여자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연재 5th

## 생일잔치

◎ 水

언제부턴가 아빠라는 사람은 자신과 이미 이혼해서 끝이 난 엄마를 찾아와서 괴롭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외할머니네 집에 와서 엄마는 싫다는데 계속 같이 살자고 했다. 나도 그런 아빠가 자꾸 찾아오는 게 정말 싫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은 엄마가 쉬는 날 집으로 찾아와 엄마를 때리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돌아온 우리들은 방문 밖에서 어찌해야할지 모르고, 가만히 있어야 했다. 마루에 앉아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빠의 욕과 엄마의 비명소리, 퍽퍽하며 몸에 주먹이나 발길이 날아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갑자기 엄마가 문을 열고 나온다. 정신없어 보이는 눈빛, 터지고, 부어오른 입술, 옷도, 몸도 거지같은 꼴이었다.

“잠깐만, 오줌 좀 누고”

엄마는 마루에 있는 요강위에 앉았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마루까지 따라 나왔다. 그 사람의 눈은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사자가 짐승을 뜯어먹을 때의 그것과 같았다. 엄마 살을 뜯어먹고 있는 것 같다.

“이년아, 얼른 들어와, 내가 그만둘 줄 알아? 잘 해주면 안 돼, 패야지.”

어렸지만 이혼해서도 맞고만 있는 엄마가 이해하기 어려웠다. 차라리 동네 파출소 아저씨한테 신고하지 싶었다. 그래도 엄마는 또 다시 끌려 들어가 얼마간 더 맞았고, 그렇게 아빠라는 사람의 뜻은 이루어졌다. 엄마와 아빠가 다시 같이 살아가는 것으로 얘기가 된 모양이다. 속으로 엄마는 바보라는 생각을 했다.

그날 이후로 아빠는 우리가 사는 외할머니네 집을 더 자주 드나들었다. 아빠가 오는 날은 무섭고, 또 언제 엄마를 때릴지 몰라 눈치를 살펴야했다. 그러더니 하루는 오빠, 나, 남동생 모두 학교를 결석하고, 시골에 있는 친할머니 생신잔치에 가야한다고 했다. 엄마는 직장에 가야해서 우리들만 아빠가 데리고 가기로 했다. 우리는 정말 가기 싫었다. 워낙 어릴 적 1년 동안 같이 살면서 친할머니라는 사람한테 질렸고, 싫어서도 그렇고 무엇보다 그런 이유로 결석을 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런데 오빠도, 나도, 남동생도, 엄마도 아무런 말을 못하고 끌려 내려가야 했다. 친구 생일잔치도 가고 싶은 곳을 가야 신나고, 재미도 나기 마련인데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의 생일잔치에 끌려가니 모든 게 짜증났다. 시골 버스터미널에 내려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버스를 탔다. 놀이기구처럼 팡팡 튀어오르는 게 다른 때 같으면 신났을 것 같다. 오늘은 그것마저도 짜증이 났다. 캄캄하고 가로등도 별로 없는 작은 시골 동네에 내렸다.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 곱하기 10배는 한 것 같은 똥냄새가 마을길을 걷는 내 내 진하게 났다. 꿀꿀거리는 돼지소리와 음메음메 하는 소들 소리가 나는 걸 보니 개네들 똥 냄새인가보다. 아무튼 그것도 너무 너무 싫고, 짜증나게 했다. 그 사람은 우리들을 뼈뼉한 나무 때문에 허름한 슬레이트 지붕을 한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짜증의 절정이다. 친할머니가 자기 때문에 일부러 우리가 찾아왔다고 생각했는지 무척 좋아하는 것이다. '저는 오기 싫었는데요 억지로 끌려왔거든요'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아빠라는 사람이 무서워 말하지 못했다.

내일 있을 친할머니 생일잔치를 위해 작은 고모도 와 있었다. 아직은 엄마와 아빠가 다시 결혼을 한 게 아니라 모두들 서로 말도 별로 없고,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만 조금씩 했다. 그러다 잠자리에 들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엄마와 살아서 초등학교 5학년이 된 나에게 아빠란 존재는 낯설기만 했다. 그런 아빠란 사람은 우리들을 너무 반기는 척 했고, 작은 시골집의 좁디좁은 단칸방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잠을 재웠다. 매일 팔베개를 하고 자던 외할머니 냄새가 맡고 싶었지만 시골까지 오는 길이 피곤했는지 금방 잠이 들었다. 새벽잠일까? 나는 누군가의 손이 내 바지를 내리고, 팬티 속으로 들어와 잠이 깼다. 하지만 소리를 지를 수는 없었다. 바로 옆에 누워있는 아빠였기 때문이다. 분명 아빠다. 그 사람, 엄마를 죽도록 패고, 또 패는 그 사람의 주먹, 바로 그 손이었다. 캄캄한 방, 모두 잠이 든 시간, 도와달라고 말할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잠자다 몸을 뒤척이는 척 하며 돌아누웠다. 그 사람은 잠시 손을 치우는 것 같더니 다시 또 내 팬티 속에 손을 넣었고, 그렇게 무서운 밤이 깊어가다 잠이 들었다.

아침에 눈을 뜨니 이제까지 살던 것과는 완전 다른 세상 같았다. 아빠라는 사람이 내 팬티 속에 손을 넣은 첫날. 나는 그 사람 눈을 쳐다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친할머니의 생일잔치를 준비했다. 평소처럼 대하는 그 사람의 쓰다듬기, 칭찬, 웃음소리가 이제는 모두 달라졌다.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아빠였지만, 그나마 아빠로 여겨주었던 마음이 없어졌다고나 할까? 무섭고, 얼른 서울 외할머니네 집에 가고 싶기만 했다. 그 날 하루는 어떻게 보냈는지 전혀 기억이 없다. 너무 끔찍했던 기억이지만 엄마에게도 외할머니에게도 말하지 못 했다. 어떻게 말해야할지 앞으로 그런 아빠를 어떻게 봐야할지 걱정이었다. 또 엄마가 아빠랑 다시 살려고 하는 것 같아 정말 무서웠다. 엄마와 그 사람이 같이 살기 위한 계획은 우리들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진행되었다. 일단은 돌아오는 여름방학에 우리들부터 시골로 전학을 보낸다고 했다. 나는 무조건 싫다고 했지만 엄마도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왜 가기 싫은지 말하지 못 해 답답했다. 그래도 부끄럽기도 하고, 아빠가 내 몸을 만질 때 가만히 있었던 것이 웬지 마음에 걸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여름방학이 되었다. 방학식을 하는 날 기분이 나쁘기는 처음이었다. 집에 와보니 외할머니와 엄마는 일하러 가시고, 치매에 걸린 외할아버지와 오빠, 동생이 집에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아빠였다.

“아빠다. 지금 데리러 갈게.”

“싫어, 나 아빠 같은 거 없어.”

“이게 너 가만히 있어, 죽었어. 어디 아빠한테”

손이 부르르 떨리고, 저쪽에서 수화기를 확 내려놓는 소리, 뚜뚜거리는 소리.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불쑥 아빠 같은 거 없다는 말을 해놓고 가슴이 두근두근 했다. 외할머니라도 나타나주면 좋을 텐데 싫다. 치매에 걸린 외할아버지는 지금의 심각한 상황을 전혀 알아채지 못 했는지 이부자리를 펴고 가만히 누워있다. 마당에 나가 열린 대문을 걸어 잠갔다. 오빠, 동생, 나는 모두 겁에 질려 있었다. 엄마나 외할머니 모두 일하는 곳에 전화도 없어 전화를 걸어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었다. 초라한 나무 대문 하나만 믿고 안방에 앉아 오들 오들 떨고 있었다. 조금 있으니 대문을 쿵쿵 두드리며 큰소리로 문을 열라는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다. 문을 다 부숴버리고 들어올 기세였다. 누가 문을 열어주었는지 모르지만 아빠가 안방까지 들어왔다. 안방에 들어서는 아빠의 손에는 부엌에 있던 연탄구멍을 맞출 때 쓰는 길다란 쇠꼬챙이가 들려있었다. 아빠가 엄마를 저런 걸로 때리는 건 봤지만 나를 때리는 건 처음이어서 너무 무서웠다. 나는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도망갔다. 부엌에서 나와 연탄을 쌓아두는 구석으로 도망갔다. 아빠는 도망가는 나를 쫓아와 쇠꼬챙이로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다. 이제까지 맞아 본 중에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다. 쇠꼬챙이로 맞은 곳은 금세 붉고 선명하게 살이 튀어 올랐다. 여기 저기 부풀어 오른 모양이 굵은 지렁이 같았다. 쇠꼬챙이가 얼굴로 날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올린 팔뚝이나 허벅지, 무릎 등 온 몸에 굵은 지렁이가 감겼다. 맞으며 도망도 다니고, 소리도 질렀지만 계속 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내가 왜 가기 싫은지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는 할 수 없이 소리쳤다.

“오빠, 아빠가 내 몸 만졌어, 나중에 엄마랑 할머니한테 말해, 내 몸 만졌단 말이야.” 아빠란 사람은 새어나오면 안 되는 비밀이 튀어나와 놀랐는지 갑자기 더 세게 짚은 간격으로 매질을 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렇게 막무가내로 때리고는 짐을 대충 챙기도록 한 후 그 사람은 나를 지난 번 친할머니 생일잔치를 했던 시골집으로 끌고 갔다. 아까는 살갗만 아팠는데 조금 지나니 뼈까지 아파왔다. 뼈까지 아프기는 처음이라 온 몸에서 열까지 났다. 아빠라는 사람은 똥냄새 풀풀 나는 시골집까지 나를 끌어들여 놓고 마음이 놓이는 모양이다. 그제야 맞아서 부어오른 살들이 보였는지 안티프라민을 발라준다.

“그러니까 아빠가 가자고 할 때 가만히 따라오면 이렇게 되지 않지, 어디 아빠한테 그렇게 전화를 받아? 이리 와 약 발라 줄게.”

아, 정말 짜증난다. 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대우를 받아야하다니. 죽어라 패고 약발라주고, 차라리 뺏으니까, 가증스러우니까, 아빠 손닿는 게 더 싫으니까 약도 바르지 말라고



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다가는 또 맞을까봐 겁이나 가만히 있어야 했다. 엄마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맞고, 또 맞으면서도 같이 살았는지 알 것 같았다. 더 맞을까봐 무서워서 그냥 살았던 것 같다.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하고 싶은 대로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그 사람은 나에게 늘 울지도 못하게 명령했다.

“울지 마, 이제 아빠 말 잘 듣고, 여기서 살면 동생도 오고, 엄마도 와서 같이 살 거니까.”

그 사람은 내가 왜 그렇게 같이 살기 싫어하는지 정말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했다. 그 사람이 내 몸에 손을 대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 사람을 아빠라고 했고, 아빠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인지 그 사람의 손길이 무섭기만 했다.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 만 같았다.

그날 밤은 막내 동생, 나, 그 사람이 안방에서 친할머니가 건넌방에서 잤다. 그 사람이 내 몸을 지난번처럼 만지면 어떻게 할지 걱정도 되고, 겁이 났다. 외할머니네서는 붉은 전구 불을 켜놓고 잤는데 여기는 모든 전깃불을 끄고, 캄캄하게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창호지를 붙인 뒷문으로 밝은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그 사람과 막내 동생이 잠들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다. 갑자기 숨이 막히고, 답답해서 잠이 깼다. 어느 새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눈을 떠보니 캄캄한 속에서도 밝은 달빛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과 눈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 사람은 내 배를 타고 올라가 있었다. 다리 사이로 까칠까칠한 털들이 느껴졌다. 내 바지는 이미 벗겨져 있었다. 그 사람은 바지도 벗고, 딱딱하고, 커다란 몽둥이 같은 뭔가를 내 다리 사이에 대고 있었다.

“가만 있어봐, 힘 빼고, 들어갈 수 있어, 처음에는 좀 아파, 가만 있어봐.”

“왜 그래요.”

내 말은 들리지도 않는 모양이다. 거친 털이 복실거리고 딱딱한 몽둥이 같은 걸 몸에 달고 있는 그 사람은 그것을 기어이 내 몸속에 집어넣으려고 했다. 어저지로 넣으려고 하니 너무 아파서 내 몸이 이리 저리 피하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지만, 몸은 아파서 그런지 자동적으로 피하고 있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넣으려고 했고, 내 몸은 계속 피했다.

“에잇, 가만 있어봐.”

갑자기 눈앞이 번쩍 했다. 그 사람의 커다란 주먹이 내 얼굴로 날아들었고, 순간 그 사람의 커다란 몽둥이 같은 것이 내 몸을 찢고 들어왔다. 쓰라리고, 아팠지만 방금 때린 주먹으로 내 입을 틀어막고 있어 어떤 소리도 지를 수 없었다. 그 사람은 그 상태에서 위 아래로 몇 번 움직이며 내 몸을 더 아프게 하더니 몸을 부르르 떨더니 내려왔다. 나는 이게 무슨 일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뭐지? 왜 이러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어두운 달빛에 반사되는 그 사람의 검은 눈동자만 보였다. 눈물도 나지 않고, 잠도 오지 않았다. 그 사람은 이내 잠이 들어 코를 골았고, 나는 다리 사이가 찢어졌는지 아파서

죽을 것 같았다. 밝은 달빛은 방금 전에 있었던 일과 상관없이 마냥 밝았다. 나는 순간적으로 내 속에 가진 모든 밝음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진공상태 같은 밤이었다. 시간도 멈춘 것 같았고, 내 생각도 멈췄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

다음 날 아침, 그 사람은 다른 때처럼 다 같이 둘러앉아 아침밥을 먹었다. 친할머니가 장사를 나가자, 그 사람은 나를 불러 팬티를 벗어달라고 했다. 그는 내가 입고 잤던 팬티를 챙겼다. 피가 묻어 있던 내 팬티를 보여주며 나에게 뭐라고 말도 했던 것 같은데 기억도 나지 않는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할 수 없었다. 친할머니는 나를 무척 싫어했고, 시골집에는 전화가 없어 엄마한테 연락을 취할 방법도 없었다.

게다가 친할머니는 집도 잘 비웠다. 낮에도 걸핏하면 집이 비었다.

“oo 야, 이리 와 봐, 자주 해야 길이 들어서 안 아프니까, 이리와 한번 하자. 그리고 집에 있을 때는 내가 치마 속에 팬티 입지 말랬잖아.”

일본 여자들의 기모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며 아무 때나 할 수 있게 준비하는 자세로 치마 속에 팬티를 입지 말라는 거였다. 정말 저 정도면 또라이지 싶다. 5년 만에 만난 딸을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 거의 매일 나는 외할머니네 집을 생각하며 울었다. 울어도 소용없었다. 그 사람은 운다고 때리고 꼭 그 짓을 했다. 강제로 그 짓을 하고 나면 더 찢어진 내 몸에 약을 발라가면서 하고 또 했다.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안방에서도 하고, 마루에서도 했다. 내가 울면 때리기도 하고 달래기도 했다. 달랠 때는 나를 업고, 앞산으로 산책을 가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손으로 내 보지를 만지곤 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챌까봐 창피하고, 기분도 나빴다. 몸은 갈수록 아프고, 지쳤다. 거의 매일을 울면서 지냈다. 상처가 아물 새를 주지 않고, 찢어진 상처에 또 쑤셔 넣고, 만지고 해서 그때는 무엇보다도 몸이 너무 아팠던 것 같다.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배부른 소리일지도 모른다. 몸의 찢겨짐, 언제 또 맞을지 모르는 상황,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시간이 계속되는 것에 비하면.....

#### ■ 水的 한마디

그 사람에게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집을 나와 살아가면서 가지처럼 박힌 기억들이 나를 곳곳에서 아프게 했다. 나온 이후 내 기억들, 상처라 부르는 지점들을 정리해보는 과정에서 수도 없이 울었다. 내가 겪은 일인데도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무섭고, 따갑고, 아팠다. 그런데 내가 울어주면서 위로해줄 때 조금은 편해지는 기억들을 볼 수 있었다. 편하게 힘들어 하고, 아파하면서 풀어낼 수 있을 때 그 기억들은 상처가 아닌 기억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 같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수많은 기억들 중 하나로 말이다. 그래서 나와 함께 그 기억들이 있어도 나 자신이 싫지 않고, 밋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는 것이리라.

##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 데이지

### 특수강간 사건

나는 한국에 공부하러 온 외국인이다. 지난 2월초에 특수 강간을 당했다. 가해자는 친구의 친구였다. 지금 사건 내용을 자세히 말하는 것은 힘들지만 간단하게 소개하겠다. 이 사건은 지금도 재판 중이다. 강간은 지금까지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이 글을 쓴다.

나는 가해자를 그날 처음 만난 사이였다. 집에 친구와 같이 바래다준다고 해서 우리 집에 와서 잠깐 얘기를 나누다가 내가 ‘이제 집에 가시라’고 하자 불을 끄고 나에게 집에 있던 16cm 길이의 식칼을 들고 위협을 하여 나를 저항 못하게 해 강간한 것이다.

당시 나는 바로 ‘죽느냐, 사느냐’의 갈등을 했다. 몸이 엄청나게 느끼는 공포로 떨리기 시작했다. 정말 무섭고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다시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나는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죽고 싶지 않아.” 그 순간에 떨리는 목소리로 “살려주세요...” 가해자에게 말했다. 다음 순간에 “이럴 때는 가해자의 말을 들어라”는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가해자가 시키는대로 따를 수 밖에 없었다. 가해자의 끔찍한 행위가 시작했다. 끝나고 가해자가 잠든 후에 나는 집에서 탈출했다.

### “PTSD: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트라우마에서 회복하는 방법

상상도 전혀 못했던 일. 나는 나 자신을 미워했다. “아예 친구를 만나지 말걸. 그래야 가해자를 안 만났을 텐데...”

나는 병원에서 “PTSD:외상후 스트레스장애”라고 진단을 받았다. 나는 이 이름에 신경을 안 쓴다. 나 같은 경우에는 이 이름에 매달리면 자꾸 약하고 무기력한 나를 스스로 만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냥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 트라우마에서 회복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신경을 쓴다.

나는 이렇게 노력해 왔다. 나름대로의 방법을 소개한다. 물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 ✧ 친구들한테 말하기

그 사건 뒤에 나는 바로 믿을 만한 친구들한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될지를 물어봤다. 친구들 덕분에 병원에 가게 되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고 상담소를 찾아갔다.

#### ✧ 상담소, 병원(정신과) 에 다니기

친구들과 같이 있어도 친구들이 내 마음의 고통을 몰라 줄 때가 있다. 나는 그때 괴롭고 고독함을 느낀다. 그래서 나는 친구들에게 의지하는 것 보다는 전문가인 상담소 선생님을 의지하기로 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의지하기로 했고, 상담을 통해 치유하기로 결정했다. 상담은 1주일에 한번씩 진행되었다. 나는 처음에는 가해자를 이해하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내 분노들을 억누르게 하고 내 마음을 무시해 오하려 나를 힘들게 했다. 상담할 때 내용을 녹음기로 녹음하고 집에 가서 다시 들었다. 불안해지거나 힘들 땐 다시 들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그리고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담을 통해 나는 내 잘 못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상식을 되찾았다.

#### ✧ 사건 당시의 기억을 기록하기

Word로 작성했다. 재판 할 때 도움이 됐다. 그 기록으로 인해 가해자가 법정에서 한 진술이 거짓말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는 그렇지 않아도 언젠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해서 남겼다. (이렇게 나눔터에서 쓸 기회가 왔다.^^)

#### ✧ 책 읽기

나한테 도움이 된 책은 “아주 특별한 용기”, 상담소에서 발행된 “성폭력 피해생존자를 위한 법률지침서”와 “나눔터”가 있다. 성폭력에 관한 책을 추천해달라고 상담소 선생님께 원했다. 그것을 통해 재판 과정을 이해하고 동시에 Self-care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기 시작했다.

#### ✧ 자기방어 훈련

나는 지금 태권도를 거의 만날 배우고 있다. 항상 집에 있으면 우울증에 걸리고 답답하니까. 힘들 때야말로 건강이 중요하니까 운동 부족을 해소할 겸 정신건강, 자기방어도 배우기 위해 그것을 한다. 발차기가 정말 스트레스를 풀기엔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자신을 알게 된다. 내가 다니는 도장에는 여성 관장님이 계셔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니 정말 마음이 편하다.

#### ✧ 상담소 활동가들과 함께 활동하기

생존자들을 위한 말하기 대회에 참가하기, 나눔터에 글쓰기, 그 외의 관심이 있는 성폭력에 관한 행사에 참가하는 것은 기분 좋아지는 일이다.

#### ✧ 인터넷에서 지식을 얻기

법률 지식, 비슷한 경험을 겪은 사람들의 경험기를 읽으면서 나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 ✧ 자신을 칭찬하기, 나만의 시간을 즐기기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거나, 평소에 안 먹는 비싼 음식을 먹으러 간다.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니까 시간이 나면 헌책방이나 대형서점에 가서 책을 구입한다. 그리고 요즘 아로마 오일을 쓰고 좋은 향기를 맡으면서 족욕을 즐기고 있다.

#### ✧ 친구들을 만나기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과 함께 만나고 논다.

#### ✧ 좋은 말이나 느낀 것을 기록하기

나는 항상 메모장을 가지고 다닌다. 인생에 대한 생각을 얻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좋은 말을 들으면 기록하고 남긴다. 그것이 나에게 힘을 준다.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상담소 선생님이 말해주신 “그 어떤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 지금 순간의 고통은 언젠가 사라진다”이다.

#### ✧ 음악을 즐기기

기분에 맞게 울고 싶을 때 듣는 음악, 힘이 나는 음악, 기분 좋을 때, 잠이 안 올 때 듣는 음악을 선곡하고 듣는다. 되도록이면 가사가 좋은 음악을 고른다. 예를 들어 나는 Bon Jovi의 “It's my life”를 들으면 힘이 난다.

#### ✧ 자국과 한국의 성폭력 실태를 비교하기

상담소나 전문가들에게만 모든 것을 맡기는 게 아니라 자신도 관심을 갖고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앞으로 귀국해도 서로 도울 수 있도록 배운다.

#### ✧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나는 되도록이면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10시쯤에 자고 아침 6~7시에 일어난다, 운동도 하고, 밥도 잘 먹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술을 안 마시는 등... 단순하게 살면 모든 것에 좋은 효과가 난다고 믿는다.

### 이 경험을 통해 느낀 것들, 원하는 것들

나는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 스스로를 치료하고자 모든 힘을 쓰고 있다.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느낀 것들을 소개한다.

#### ✧ 재판에 대하여

① 1심 재판에서 2년6개월의 실형선고가 나왔는데 이것이 가볍다는 점. 비록 초범이라도 엄하게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봤을 때 가해자는 다시 성범죄를 할 여지가 있다고 느꼈으니까.

② 가해자 측 변호사가 자료를 열람하는 점. 그로 인해 내 사생활정보가 노출되어 변호사, 가해자 부모가 상담소, 우리 집까지 찾으러 오고 날 괴롭혔다. 피해자를 보호해야하는데 안 지켜졌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고쳐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③ 가해자가 맘대로 공탁금을 걸었다는 점. 내가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집까지 찾아와 주소까지 알아봐서 걸었다. 그로 인해 형량이 줄어들었다. 이것을 가해자의 노력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고 본다. 피해자를 보호해야하는 데에 있어서 법적으로 모순된 점이 많다. 이런 것들은 지적해 고쳐야한다고 생각한다.

#### ✧ 치유를 통해서

분노들을 부딪칠 수 있는 곳을 찾았다면 마음의 회복은 빠른 것 같다. 그리고 반성폭력운동에 참가하는 것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같다. 강간을 당한 뒤 무기력해지고 희망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한국을 떠나고 싶었는데 성폭력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고 나서 미래에 대한 나의 꿈이 다시 생긴 것 같다. 내 꿈은 “여자와 남자가 함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 ✧ 한국사회에 대하여

불만도 있지만 그만큼 감사하는 것들도 많다. 외국인이라도 이럴 때 의료지원금을 주고 돌봐주는 시스템이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도 한국이든 외국이든 모두 같은 인간이라면 인간 권리를 잘 보호해야 한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제발 외국인들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아니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그렇게 되길 원한다.

#### ✧ 미래를 생각하며

나는 그 동안 많이 울고, 많이 힘들고, 많이 방황했지만 내가 움직이면 주변에는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날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나는 혼자자 아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더욱더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강하게 느꼈다. 그래서 앞으로 내 삶을 소중히 하루하루 열심히 살 것이다. 나에게 그럴 권리가 있다. 한 인간으로서, 한 여성으로서 반성폭력활동을 할 것이다. 한국 여성들, 또는 전 세계의 여성들이 더 이상 울지 않게 지킬 것이다. 나는 이번 일을 계기로 내가 느낀 것을 다 말하고 이 사회가 조금이라도 바뀌도록 노력할 것이다. 혼자서는 힘들다. 하지만 희망은 가질 수 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우리 함께 힘을 모으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멈출 수는 있지만, 다시 뒤로 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전진하자!!



## 작은 말하기

◎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자주

4월 25일 '작은 말하기' 그 첫 이야기를 열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15명의 소규모로 진행된 이 날 '작은 말하기'에서는 말하기에 대한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이 공존한 가운데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말하기'는 내담자와 상담자의 경계를 가르며 참여자 모두가 말하기의 주체이자 담론의 생산자로서 다양한 경험들이 만나 단일한 성폭력 개념을 해체한다는 거대한 포부를 안고 기획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대일 상담이라는 형식을 벗고 '생존자말하기대회'라는 연례행사의 힘(?)을 뺐, 처음 시도하는 '작은 말하기'에 어떤 참여자들이, 어떤 욕구로 올 것인지 어느 하나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없었지요, 그렇게 '작은 말하기'는 조금은 비어있는 채로, 그러나 그 여백은 참여자들의 기운과 역동으로 채워질 것을 믿으며 조심스럽게 한 발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려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역시 기우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서로의 말을 집중하여 경청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서로 간의 거리감이 서서히 좁혀짐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두 시간의 '작은 말하기'의 시간이 끝이 나고 우리들의 말하기는 왁자지껄한 한바탕 뒷풀이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작은 말하기'가 궁금하실 당신을 위해, 참여자들이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 들어 보실래요?

'작은 말하기' 속으로 go go~!



♥ 이 글은  
'작은 말하기'의  
참여자분들이  
직접 작성해주신 것입니다.

### 나쁜

어제 작은 말하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사실, 전화를 한 것도, 그 안에 들어서는 것도 무척 망설여졌어요. 그렇게 15분을 서성대다가 들어서고, 어색하고 주눅주눅 서로 다들 아는 사이인 것 같아 움츠러들었던 처음. 그러나 말문이 트이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처음으로 낯선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꼭꼭 눌러담아왔던 것들 나에게 상처줬던 말들 나를 향해 비수를 꽂아대던 나 자신의 모습들. 머리로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당당하지 못했던,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들었던 몇 몇 순간들. 달핀님이 듣고 싶었던 말이 뭐냐고 물으셨는데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사실 없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외려 가만히 듣고 있어 주기를 토닥여 주지 않기를 위로한답시고 어쭙잖게 "이해한다 그러나 잊어버려라"고 하지 않기를 그러기를 바랬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생존자들을 만나면서 용기를 얻었달까. 어제 돌아오는 길에 지지자들을 만났다는 마음에, 벅차서 그대로 집으로 갈 수가 없어서 막차가 끊긴 곳에서 집까지 걸어가면서 내내 미친 사람처럼 흐흐 거렸습니다.



기억을 끄집어낸다는 게 난도질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을 토해내는 것, 뱉어내는 것, 나의 소중함을 아는 것 이 작업들의 끝은 내가 겪어가고 살아내는 과정은 저를 당당한 생존자로, 피해자에서 은둔자에서 거듭나게 할 거라고 믿어요. 황설수설 했네요. 하하 모두 5월 30일에 뵈겠습니다.

### 푸르매

1983년, 내 나이 7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지 5년 8개월 되는 즈음.. 내가 딸기맛 카라멜을 사러 슈퍼에 갔을 때 슈퍼주인 남자에 의한 성추행사건을 겪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도 모른 채 커다란 충격 속에 살았었고, 12살 때 침으로 엄마에게 그 사건을 울먹이며 얘기했을 때, 엄만 내게 엄마도 어릴 때 동네오빠가 연필 준다며 불러다가 아기 업고 있는 엄마의 성기를 만졌다고, 하지만 그런 일은 시간이 가면 다 잊혀진다고 너도 잊어버리라고 했다. 나도 그 말을 듣고 잊혀질 꺼라 생각하고 잊고 싶었다. 하지만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시간이 갈수록 나에게겐 엄청난 외상이 된 그 사건은 나를 괴롭혔고 내 영혼은, 내 가슴은, 내 몸은 끓아갔다. 몇 년씩 틈을 두고 내 비밀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내가 제일 사랑하고 의지하는 엄마에게 나 괜찮지 않다고 너무 힘들다고 죽고 싶다고 말했지만 그때마다 엄만 왜 아직도 그러냐고 별거 아닌 일로 왜 그러냐고 잊으라고 했다. 난 그 가해자를 죽이고 싶고 엄마도 죽이고 싶고 그리고 나도 죽고만 싶었다. 터질 듯한 분노는 우울증이 되어 나와 내 주변 관계들을 파괴시켰고, 난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거의 모든 접촉에 대한 공포증을 갖게 되었다. 길을 걸을 때 누가 불필요하게 날 부딪치고 지나가도 큰 스트레스가 되어 너무 괴로웠기에 거의 난 내 방 어둠속에서만 죽은 듯 살아있었다. 그러다 죽더라도 병원한번 가보고 죽자라는 생각으로 병원에 갔고 그 의사조차 거부장적인 모습을 보여 실망스러웠지만 그간 내가 접했던 여성주의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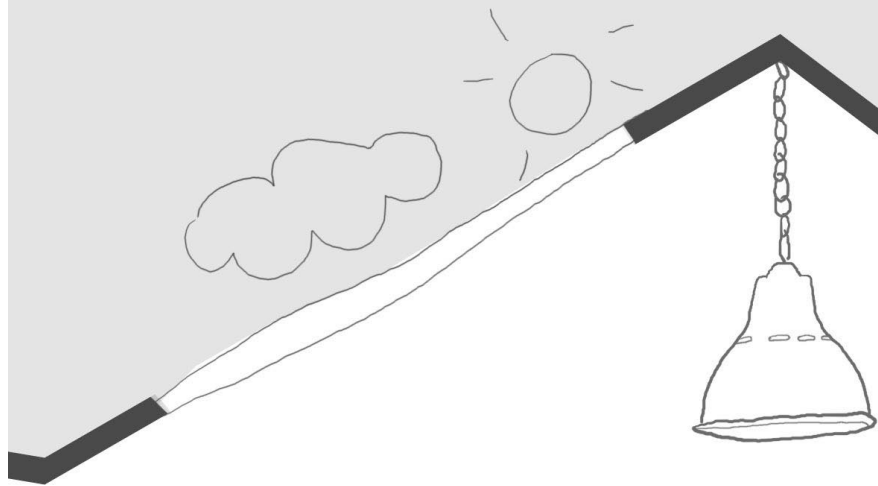
의 생명이 같은 도움으로 그 의사의 거부장성은 거부장성이라 무시하려 하며 약물치료와 도움 받을 부분은 있을 꺼라 생각하며 병원을 계속 다녔다. 병원을 다니며 여전히 힘들지만 그래도 다시 살아보려 애쓰고 있는 때에 성폭력 상담소 '작은말하기'를 만나게 되었다. 내가 다른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픔을 느꼈듯, 그 러면서도 그분들의 아름다운 힘 또한 느꼈듯, 그분들도 내가 엄마와 의사를 제외하고 세상에 처음 털어놓은 나의 피해 사실을,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며 공감하고 아파하고 날 아껴준다는 마음을 정말 느꼈다. 내가 괜찮아졌었다고 생각했었던 것이 착각이었다고 생각할 만큼 내안의 아이는 처음으로 제대로 내가 어떤 일을 겪었다고 울부짖었고 그 울부짖음을 나무터도 처음으로 제대로 귀 기울여 들었다. 내 얘기를 제대로 들어주신 다른 피해생존자분들.. 다들 알알이 빛나는 보석이었고 내겐 관세음보살 같았다. 그 경이로운 순간을 난 내치유의 첫걸음을 땀 순간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 진정한 감동을 난 오래도록 기억할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존재하는걸 보았고 난 이제 진짜 잘 살고 싶고, 사랑하고 살고 싶다.



### 니나

작은말하기 대회... 첫걸음... 그리고 시작. 우리아기가 태어났을 그때에, 처음 신생아실에서 갓 태어난 아기들을 보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세상과 부대끼며 살아갈까...라며 호뭇했었다. 작은말하기대회에서 만난 이들을 보며 갓 태어난 아기를 보듯 호뭇해졌다면, 이 공간이 바로 새 생명이 이 땅에 발 딛은 첫 순간의 그 공간과 동일시돼서 었을까... 많은 아기들이 웃고 울며 세상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나는 평생을 새로 태어난 이 아기들과 함께 세상을 살고 나누고 싶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지켜보며... 생의 한가운데서...





열림터의 시설기능 보강비 지원이 결정되고 나서부터 열림터엔 그야말로 봄빛이 화사하게 비추었습니다.

무엇 제일 우선 순위로 고쳐야 우리식구들이 깨끗하고 편리하게 그리고 아늑한 공간이 될까로 즐거운 고민이 시작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자꾸 자꾸 흘러도 너무나 복잡한 행정적 절차가 뒤따라야 해서 공사가 언제 시작될지 몰라 고쳐야 할곳들은 자꾸 자꾸 눈에 들어오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니 슬 슬 짜증도 나려고 해서 열림터 식구들은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 즐겁게 기다리는 방법으로 우리들끼리 먼저 수다로서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각자의 방에 좋아하는 벽지를 발라보기도하고 가구의 자리도 바꾸어 보고 거실의 구조가 확달라져 아예 새로 집을 지어야 하기도 하구요. 너무나 획기적인 공사엔 식구들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집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까지 열심히 한적은 없었던것 같아 모두 모두 즐거워 하며 많이 웃기도 하며 열심히 공사를 했습니다

## 앤의 수다

난 말이지 우리 열림터가 지붕이 온통 유리로 되었으면 좋겠어. 눈이 오거나 비가 내리면 집안에서 그대로 느낄 수 있잖아. 그리고 누워서 달이랑 별이랑 모두 볼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정말 여자들의 집이구나 하는 느낌이 나는 그런집이면 좋겠어.우리들의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들도 많이 장식되어있고..... 음 그리고 내방에는 벽지가 파스텔 톤으로 된 물방울들이 그려진 벽지를 바르면 좋겠어.

## 소화의 수다



난 그냥 깨끗하고 심플하게 모든게 정리되었으면 좋겠어.

너무 이런저 저런거 꾸미고서 청소도 못하고 화분 관리도 제대로 안해가지고 말라죽이고 그러는게 너무 싫을것 같아.

내방은 연두색 빛갈이 어울릴것 같아. 내가 연두색 굉장히 좋아하거든.....

거실에 쇼파있으면 그건 찬성이야. 엉덩이가 너무 아프거든.

그래도 난 열림터가 그냥 보통 집 같아서 너무 좋아.

집에 관한

## 열림터인들의 수다

◎ 열림터 활동가 조혜옥



## 보리의 수다

우리방에는 커다란 꽃무늬하고 기린이나 얼룩말이 한마리 그려져 있는 벽지를 바를꺼구요. 천정에는 흰구름이 둥둥 떠있는 벽지로 할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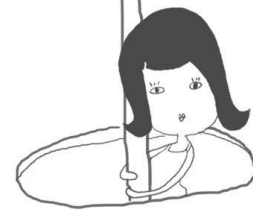
그리고 이층 침대가 있으면 넘 좋겠어요.

거실에는 산세베리아도 좀 키우고 선인장이나 예쁜 꽃이있는 화분들도 갖다 놓으면 예쁠것 같아요.

부엌 싱크대나 찬장은 핑크색조면 어떨까요?

거실에있는 피아노 위치도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쇼파가 있어야 어울리는데.....

아~참 이층에 올라갈때 하이킥에서처럼 붐을 설치하면 딱인데.....



## 캥거루의 수다

부엌 싱크대랑 찬장은 깨끗한 색으로 밝은색으로 하는게 좋을것 같아.

그리고 거실의 장식장도 깨끗하고 밝은색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번에 각자의 방문도 바꾸어 보면 어때?

아무런 격식이 없이 그냥 지껄이는

수다의 시간은 즐거워서 멈추어 지질 않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내일을 준비하려면 잠을 청해야 하므로 우리들의 수다를 이쯤에서 접어야 만 합니다.

가만히 수다들을 들여다 보니 아름답고 깨끗하고 편안한 공간들에 대한 열망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공사를 시작할 터이고 지금의 허술하기 짝이 없는 공간들이 새단장을 할것입니다. 우리 열림터는 언제 우리가 그런 귀퉁이가 떨어져 나간 식탁에서 식사를 했으며 뒤틀린 싱크대에서 곡예를 하며 식사준비를 했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날이 올 것이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만 올봄에 대학진학을 하여 기숙사 생활을 1달 정도 한 송미가 열림터에 잠깐 다니러 와서는 같이 식사를 하며 그래 이게 집밥맛이야!!! 를 외치며 맛있게 달게 식사를 배불리 하는 모습이 참으로 정겨웠습니다. 비록 너털너털하여 꼭 흥부네 살림살이 같던 우리의 열림터이지만 제비가 물고온 박씨가 영글었으니 이제 슬슬 박을 켄 준비만 하면 될 성 같습니다.

# 내 남자의 **불륜**을 보는 여자

◎ 열림터 활동가 거북



얼마 전 나는 평소 생활수준을 뛰어넘는 고가의 손전화기를 열떨결에 구입했다. 이 허무한 소비의 결과는 앞으로 꼬박 24개월 동안 청구서에 찍혀 내 눈물도 찍어낼 것 같아 걱정이지만, 막상 손에 들려있는 신기한 기능의 전화기를 보고 있으면 흐뭇하기 짝이 없다. 상황이 이러하니 청구서의 압박은 감당할 수밖에. 변두리 이야기는 각설하고, 이런 나의 다기능 손전화기가 가장 사랑스러운 시간이 있으니 바로 월/화 9시 50분, 드라마 <내남자의여자>가 할 때다. 이 애매한 시간엔 대개 길바닥에 있기 마련인 나는 기꺼운 마음으로 지상과 안테나와 이어폰으로 무장하고, 사랑스러운 손전화기로 TV를 보기 시작한다.

## ‘내 남자’의 여자들

‘내 남자의 여자’라는 드라마의 제목은 생각할수록 맛이 우러나는 것 같다. ‘내’ 남자를 가진 한 여자, 그리고 그 남자와 소유격 조사 ‘의’로 연결된 또 다른 여자.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전자는 지수(배종옥) 그리고 상대 여자는 화영(김희애)의 구도를 생각하며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다. 평화로운 부부와 거기 끼어든 (잘 때어버리기만 하면 되는) 여자. 그런데 드라마는 육탄전과 눈물바람을 지나면서 세 사람의 관계 지형을 바꾸었다. 남자는 지수에게서 떠나 (사실 쫓겨나) 화영과 살고, 지수는 떨어져서 그들을 보는 위치가 된 것이다. 지수는 화영의 자리로, 화영은 지수의 자리로, 바뀌지 않은 것이 있다면 중간에 끼인 남자의 국어시간엔 수학공부 수학시간엔 국어 공부하는 우유부단 이중적 태도 뿐. 이런 3인의 관계를 보고 있자니 뭔가 이상하다. 그럼 이제 ‘내’ 남자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화영이 된 것일까.

일차적으로 그 남자를 내 것으로 말할 수 있는 자격은 단순히 그 관계가 시간적으로 오래되고 먼저 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 같다. (만약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첫사랑의 ‘내 것’이 된다.) 내가 생각하기에 한국사회에서 여자가 남자에 대한 소유와 지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결혼제도, (남편의) 아이, 그리고 정절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수이다. 그리고 그녀가 들인 노력을 생각하면 그럴 법도 하다. 반면에 화영에게 있어 내 남자의 의미는 ‘내가 너무 뜨거웠어, 니 남편이 너무 뜨거웠어, 지구가 깨져도 상관없었어.’라고 지수에게 말할 정도 위험하고 그야말로 뜨거운 것이다.

내 남자의 여자



## 윤리적이지 않은 관계 ‘불륜’을 보는 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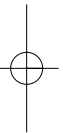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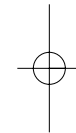
욕망으로 만들어진 그 관계가 비록 늦게 생겼을지언정, 주위에 모든 것을 깨버리고 있는 것 처럼 보일지언정, 나는 그 파괴성이 밍지 않다. 드라마를 보고 있노라면, 화영이 ‘너도 착한 여자야’라는 남자의 말에 느꼈을 위로, 남자의 아이를 낳겠다며 고집을 부리는 모습, 그리고 가까운 친구였던 지수를 그리워하며 찾아가는 모습들, 그 면면들이 가슴에 와 닿는다. ‘지랄 씹 싸먹는 것’을 벌인 ‘튀겨죽일’ 여자이지만, 화영이 보이는 욕망들의 이유를 보다 입체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이해하게 되는 것은 실제 ‘불륜’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하루 종일 똑같은 노래 반복 듣는 것’처럼 지루하고 착한 여자인 지수가 이혼을 생각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남자와 협상하는 과정 보며 고개를 끄덕 거리게 되는 것도 실제 ‘결혼’을 둘러싼 조건들을 환기시키기 때문일 것이다. 드라마와 역사와 함께 한 ‘불륜’의 소재가 비현실적으로 보여 질수록, ‘불륜’은 그에 얽힌 사람들의 관계성은 실종되고 ‘바람’처럼 지나가는 우발적 일로 읽히기 쉽다. 그러나 불륜이 어디 그런가, 옳고 그름과 찬성 반대를 떠나 현실인 것을. 그리고 나는 보다 그것답게 받아드려지고 이해되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 계속되는 DMB의 축복

이 드라마에 대한 자료를 찾기 위해 네이버에 들어가니, ‘내’만 쳐도 드라마 제목이 자동 완성된다. 그 이후로 검색되는 블로그, 사이트, 관련배우, 드라마 명대사까지, 드라마의 인기를 실감케 하고, 배우들의 대사 쏘아대는 속도만큼이나 시청률의 급증도 굉장하다. 주변에서 보이는 반응들이 재밌는 것은 결혼한 언니들의 경우 거의 100% 남자의 이중태도에 대한 분노와 공감(!)을 먼저 보이고, 비혼으로 살고 있는 언니들은 초반 육탄전과 화영이라는 캐릭터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아마도 남편의 불륜 사태를 당해야 하는 지수 자리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인 것 같다. 혹은 일면 스스로 그럴 가능성 혹은 충동을 느끼기 때문인 것도 같다. 나 역시 그 경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앞으로 화영이 남자의 가족들과 만들 갈등의 그림들과 그녀의 인생, 그리고 지수의 인생사 전개가 궁금해진다. 여전히 ‘홍서방인지 청서방인지’ 중요하지 않은 그 남자의 우유부단 과정도 좀 더 지켜볼만 할 것 같다. 내 손전화기의 축복은 이렇게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성문화읽기\_〈내 남자의 여자〉를 보는 여자





## 모성보호에서 권리 담론으로 수영장 생리 할인 및 생리 공결제 논란에 대해<sup>1)</sup>

◎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키라

최근 생리 결석 인정 및 수영장 요금 생리 할인과 같은 이슈에 대한 찬반 논의가 뜨겁다. 겉보기에 찬반 양론이 팽팽히 대립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주장들이 근거로 들고 있는 여성의 경험은 대립되지 않는다. 생리 결석이나 수영장 생리 할인을 찬성하는 측은 ‘일부 여성들에게 생리는 극도의 고통으로 경험되며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준다’는 것을 강조한다. 반대로 생리 결석을 반대하는 측은 ‘어떤 여성들은 생리를 해도 일상 생활에 무리가 없다’는 경험을 근거로 든다. 둘 다 맞는 말이다. 생리 때문에 응급실로 실려가는 여자도 있고, 생리 할 때 무리 없이 테니스를 즐기는 여자도 있으며, 생리 자체를 하지 않는 여자도 있다. 누구의 경험을 진짜 여자의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생리가 ‘여성’의 경험이라는 것에 아무도 전혀 의심하고 있지 않다는 데에 있다.

이에 대해 던지고 싶은 다른 질문은 ‘생리’가 공적 경험인지에 대한 것이다. 여자의 생리가 이렇게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편안하게 이야기될 수 있는 주제인가? 언제부터 그랬는가? 생리혈이 바지에 묻어서 (그렇지만 개의치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여자를 본 적이 있는가? 대중 목욕탕 라커룸에서 생리대를 팬티에 부착하는 여자를 본 적이 있는가? 교수가 ‘생리’를 휴강의 사유로 학생들에게 이야기한 적 있는가? 사실 생리는 갑자기 모성보호라는 거대한 국가 담론에 포섭된 경향이 있지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리하는 몸’에 대한 터부는 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사적 공간의 문제인 생리하는 여성의 몸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몸이다.

수영장에서 피 흘리는 여성이 자신과 함께 물에 몸

을 담그고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수영장에서 여자들이 생리로 인한 불편함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수영장에 있을 몸의 분비물은 생리 이외에도 많다. 발톱 손톱의 때부터, 비듬, 콧물, 방귀, 소변, 머리카락 등등. 그 모든 것보다 생리혈이 더 불결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생리혈을 터부시하는 성별화된 규범의 해석이다. 생리하는 여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편하게 ‘변화된 정책’을 이용하려면 이러한 ‘생리하는 여자’에 대한 불편함이 사라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생리 휴가라는 제도가 있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처럼, 실제 개인들과 괴리된 정책이 될 수 있다. 모든 여성이 생리를 이유로 수영을 쉬는 건 아니지만, 생리에 대한 구체책이 생긴다고 하여도 생리를 이유로 쉬고자(환불받고자) 하는 여성들이 그 제도를 이용할지는 미지수이다.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이다. 생리에 대해, ‘여자들의 개인적 경험’으로 치부하고, 생리혈에 대한 터부를 지속시키면서 ‘생리를 이유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한 내용을 보면, “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여성의 건강권과 모성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등을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다. 여성의 모성보호, 건강권이 생리로 인한 권리 담론을 포섭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학생을 ‘여성’으로서 보호한다는 것이다. 여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은 특정한 학생들을 여성으로 소환하고 결과적으로 ‘여성’이라는 집단을 생산해내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여성의 몸을 늘 임신해있거나 임신을 위해 준비된 몸으로 상상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생리와 여성의 몸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에는 모성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개인 여성의 ‘생리 경험’이 그 내용으로 채워져야 한다. ‘모성 보호’는 남녀의 차이를 극대화하고 여성의 ‘가임 가능한 몸’에 국가 존망이 달려있다는(저출산 담론) 국가주의 담론이며 그와 무관한 여성의 몸을 배제하는 담론이다. 어머니가 될 몸을 보호하는 것, 건강한 아이와 건강한 가족의 수호자인 어머니를 보호하는 것은 남성 국가가 수행해야 할 당연한 의무인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와 누이를 보호함으로써 국가는 남성 성별을 획득하기도 한다. 생리하는 여성의 몸을 이러한 ‘담론’에 의지하여 사회적으로 ‘구제’해야 한다는 것은 쉽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는 모든 여성의 몸을 ‘예비 엄마’로 놓는 것이며 결국 여성의 몸을 단일화하고 남성과의 차이를 본질화하는 담론을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리와 관련한 불편함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은 동시에 여성의 생리 경험을 모성보호 담론 안으로 끌어들여 경향에의 도전과 함께 가야 한다.

생리는 여성이 ‘가임 기간’임을 확인시켜주는 기제로서의 의미만을 갖지 않는다. 가임 기간의 의미가 큰 특정한 시공간의 여성들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것 이외에 여성들의 개인 몸을 통해 경험되는 생리의 내용은 굉장히 다양하다. 하지만 여전히 주관적 경험에서 그칠 뿐이다. 생리가 개인 여성들의 일상과 연관되어 있는 방식, 생리가 여성들에게 갖는 의미는 다양하고도 다를 것이다. 모든 여성이 동일하게 생리를 경험하는 건 아니다. 공간에 따라 그리고 그 공간을 이용하는 여성들에 따라 그 여성들이 경험하는 ‘생리’는 다르다. 비단 여성 뿐만 아니라 수영장이라는 공간에서 다양한 몸들의 차이가 어떻게 고려되는지를 생각해볼만

한 문제이다.

여성들이 구제책을 오남용하고, 한 마디로 ‘거짓말’할 수 있다는 상상은 ‘생리하는 몸’의 구체적 경험에 대한 상상력 없음에서 기인한다. 생리하지 않는 성인 남성의 몸이 표준인 곳에서 표준의 몸이 아닌 몸들은 의심의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생리하는 여성들의 몸이 생리로 인해 ‘극도의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제도의 변화에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모든 여성이 생리를 동일하게 경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주장은 궁극적으로는 생리통이 없거나 덜 심한 여성들의 경험을 ‘구제 담론’으로 설명하지 못하게 한다. 모든 여성으로 일반화할 필요도 없이, 수영장이라는 공간에 특정한 여성들의 생리와 관련하여 불편한 경험들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즉, 생리통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여성들을 구제한다기보다, 그 몸의 ‘다름’이 경험으로 드러나고 그 경험이 공적 영역에서 논의되고 해석되는 것을 통해 이것이 하나의 ‘권리’ 담론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으로서의) 고통’이라기보다 ‘(특정한 시공간의 개인으로서) 불편함’이어야 하며, 무엇이 불편한지, 왜 불편하게 되는 것인지와 같은 그 불편함과 관련한 몸 경험이 이야기되고 축적되어야 한다. 그 경험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먼저 필요하겠지만 말이다.

1) 이 글은 한국여성민우회 「함께가는여성」 2007년 3·4월호에 실린 내용을 수정·보완했습니다.



## 만나고 싶었습니다

◎ interviewee\_너머서 공동대표 전미옥  
◎ interviewer\_온라인사업팀 활동가 아름



### 차별과 폭력의 벽을 넘어, '너머서(Beyond IT)'

2007년 2월 24일, 서울YMCA가 한국YMCA전국연맹으로부터 제명되었다. 전체 회원의 60%, 자원활동가의 90%였던 여성 회원들에게 선거권과 의결권을 주지 않는 등 성차별적인 관행으로 YMCA 고유의 정신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이념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를 고수하였기 때문이다.

YMCA(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의 'Men'은 남성이 아닌 사람의 의미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세계YMCA는 1998년 세계대회에서 '모든 사람, 특히 청년과 여성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들의 역량을 키워 형평성 있는 사회를 일군다'는 선언문을 채택했고, 사실 서울YMCA도 1967년에 이미 회원 자격을 '남성'에서 '사람'으로 변경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회원들의 참여권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꼭 닫고 모른 척 했던 이들에 대하여 싸웠던 서울YMCA 내 여성모임이 '너머서'로 출범한 지 벌써 3년째이다.

2006년 2월, 종로에 위치한 서울YMCA 본관에서 103차 정기총회가 열린던 날,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활동가들도 그 자리에서 이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허를 끝까지며 'men'이 아니기에 참여권을 줄 수 없다고 말하던 'young'하지 않은 남성들의 호통 속에 꼭 닫힌 총회장 문을 바라보며 이들이 '넘고자' 했던 차별과 무지의 벽을 실감했었다.

그리고 2007년 봄, 한결 여유롭고 생기가 넘치는 '너머서'를 찾아 전미옥 대표님을 오랜만에 보았다.

나눔터  
entertainment

단체 이름이 '너머서'인데, 무엇을 넘는다는 뜻인가요?

예. 비민주적 폭력, 여성차별, 남성중심 조직문화를 넘어서 평화·평등을 향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아서 '너머서'라고 지었어요. '넘어서'가 아니라 '너머서'입니다. 호호.

너머서의 탄생설화는?

너머서는 서울YMCA의 개혁모임에 참여하던 회원들이 YMCA 밖에서 결성하면서 시작된 단체이고, 지금은 YMCA로부터 분리되어 나와 활동하고 있어요.

2002년에 당시 서울YMCA 회장이었던 김수규의 비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서울YMCA 전반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졌어요. 비민주적 운영, 이사 중심의 인사구조, 여성의 참정권 배제 등은 큰 문제였지요. 특히 서울YMCA는 회원과 자원활동가의 60~70%가 여성들이었지만 '관례' 때문에 여성들은 회원으로서의 총회 선거권·의결권을 가질 수 없었어요. 많은 여성들은 그저 각자의 파트에 몰입된 채 활동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활동하다 보면 다른 파트의 사람들과는 소통하거나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힘들었어요. 이런 여성차별 문제, 개별기구중심 운영 문제 등 여러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되었고, 너머서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여성모임도 꾸려지게 되었지요. 이 모임이 개혁모임 안의 여성특별위원회였어요.

사실 2003년에 100차 총회 즈음에 서울YMCA 이사들과 개혁모임 진영이 의견조율을 하여서 다음 해부터 여성과 남성이 같이 총회에 참여하자는 이야기가 된 적이 있었어요. 당시 표용근 이사장이 2003년 2월에 통과시키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총회 당일에 개혁모임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며 총회장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이를 이유로 총회를 파장시키더라고요. 저희는 이삼십 명이었고 그 안에는 400여 명이 있었는데, 저희 때문에 총회를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총회를 파해서 그 안은 결실 없이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2004년이 됐는데, 여성 회원을 인정하는 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그 안을 받는 것 까지만 동의된 거라고 이사들이 말을 맞추었더라고요. 그리고는 여성특별위원회 안건은 받지도 않았어요.

2005년 2월에는 남성으로만 구성된 총회 참석 회원들에게 여성 참정권에 대한 찬반 표결을 붙이기도 했는데, 반대가 두 배 정도 되어서 무산되었어요.

그러다가 2006년에는 아예 남성단체로 가자는 논의가 나왔고, 이는 남성 회원들도 반대해서 무산되었어요. 이사회에서 총회 구성원 자격에 관한 헌장 규정을 '사람'에서 '남성'으로 바꾸고 본 위원회에 소속된 여성에 한해 총회원이 될 수 있다는 제한적 내용의 2항을 추가한 개정안을 발의했던 것이지요.

부결은 되었지만 여성특별위원회는 강하게 반발했고, 논란이 계속되자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회는 2006년 6월, 서울YMCA가 여성참정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5개월 이내에 서

울YMCA를 퇴회 및 퇴회에 준하는 제재조치를 실행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어요. 그러나 이 퇴회조치는 2006년 11월에서 '2007년 총회까지'로 미루어졌지요.

결국 2007년 104차 총회 때 '대의원 당연직 40%, 선출직 60% 중에서 선출직을 뽑을 때 한 성의 80%가 넘지 않게 한다'는 헌장 개정안이 나왔어요. 전체 대의원의 12%만이라도 여성으로 하자는 의견이었지만, 이 역시 총회 구성원 1663명 중 711명 참가, 찬성 293표, 반대 403표, 기권 13표, 무효 2표로 찬성표가 전체의 3분의 2를 넘지 못해서 부결되었어요. 그 결과로 서울YMCA는 한국YMCA전국연맹에서 제명되었고, 퇴회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에요.

이 싸움의 와중에 여성특별위원회는 성차별철폐연대회의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2005년 여름에 '너머서'로 발족하게 되었어요. 이 때 영상집단 "푸른영상"의 문정현 감독이 서울YMCA 여성 회원들의 투쟁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슬로브릿지의 딸들」이 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되었거든요. 이 시기에 맞추어 서울YMCA와는 별도로 새로운 단체로서 출범하게 된 거죠. 지금은 다행히 서울여성플라자 NGO 센터에 자리를 잡고, 서울YMCA에 대한 투쟁과 함께 그 밖의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어요.

너머서에서는 누가 누가 일하나요?

일단 너머서는 회원들의 후원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단체예요. 너머서 회원들은 2000년대 초기에 개혁모임에서 활동했던 회원들이 대부분이죠. 함께 서울YMCA를 나온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성 사안을 중심으로 특화되고 나서는 300명 정도의 회원들이 함께 하고 있어요.

회원들은 단순히 너머서를 '후원'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들의 관심분야를 가져와 너머서의 사업을 만들어 가는 이들이예요. 이를 받아서 지원하고, 논의를 거쳐 장(場)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상근활동가들이 하고 있지요.

상근활동가들은 총 세 명인데요, 아무래도 후원금 기반 단체이다 보니 운영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참, 대표는 여성대표, 남성대표 두 명인데요, 여성대표는 인터뷰하고 있는 나(전미옥 대표), 남성대표는 윤치는 씨입니다.

너머서의 활동에 대해

너머서의 활동들은 분과별 회원모임을 통해 이루어지는 데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분과별 사업계획 회의인 '너머서 포럼'을 연답니다. 벌써 120차 넘게 진행해 오고 있어요.

분과는 먼저 평화·문화 분과가 있어요. 이 분과에서는 성평등하고 평화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성들의 평화를 위한 명상·춤 치유 프로그램, 평화적 소통을

위한 비폭력대화 프로그램, 다문화 가정 이해 프로그램 등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로 아동·청소년 분과가 있는데요, 이 분과에서는 사각지대 10대 여성의 자립을 돕는 프로젝트,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 슈퍼바이징 & 멘토링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늘푸른여성지원센터와 함께 진행하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미디어네트워크분과도 있습니다. 이 분과에서는 미디어를 통한 가족 간의 대화와 만남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부모들을 위한 컴퓨터 및 UCC교육을 열어 부모들이 직접 UCC 제작에 참여하여 신세대 자녀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분과별 사업 이외에도 서울YMCA 사태에 대한 대책회의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해 주실 말씀이 있다면?

남성회원들이 너무 없지 않나요? 남성들도 반성폭력 운동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호호호.

[편집자주] (사실 저희도 2003년 쯤 '성폭력 근절, 남성도 된다!'라는 남성서포터즈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너머서와 나누고 싶은 또 다른 이야기 : 기독교 단체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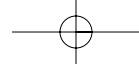
너머서는 기독교 단체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기독교 세례 증명이 있어야 회원이 될 수 있는 YMCA에서 같이 나온 회원들이 만든 단체이다 보니, 회원 중에 기독교인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YMCA에도 수많은 비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저 자원활동을 하고 싶어서 YMCA에 들어갔던 것이니까요. 이사들의 3%도 비기독교인이 라고 해요. 저(전미옥 대표)는 너머서 대표이면서, 무신론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윤치는 대표는 내분이 일거나 할 때에는 기독교성이 구심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친기독교 여부를 두고 너머서 안에서도 많은 투표와 토론 과정을 거쳤어요. 결국에는 열린 친기독교성을 지향하자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다고나 할까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_ 너머서(Beyond IT)





## 〈길 잃은 여행자들을 위한 캠프〉로의 초대

◎ 미술그룹치료 여행자 달로



저는 〈미술치료〉라는 '길 잃은 여행자들을 위한 캠프'에 참가하고 있는 여행자 달로라고 합니다. 이 여행을 시작한지는 이제 6개월 정도가 되었네요. 저희 캠프는 치료사라고도 불리는 든든한 캠프지기 한명과 각자의 스타일로 여행을 꾸려가는 다섯 명의 여행자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길 잃은 여행자를 위한 캠프'라는 그룹 이름은, 살면서 관계에 지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길을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여행자들이 지친 체력을 회복하면서 계속 될 여행을 준비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아 지었습니다.

제가 미술치료를 시작하게 된 것은 작년 우연치 않게 짧은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평소 말이나 행동을 은근히(!) 하는 탓에 잘 드러나지 않던 나의 다양한 면들이 미술 작업에서 색깔이나 이미지 등으로 보여 진다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스물일곱 해 동안 살아온 '나'라는 그림은 어떤 밑그림을 갖고 있었고, 다시 '나'라는 화가는 그곳에 무엇을 덧칠하고, 또 어떤 것을 지우면서 살았는지를 살피고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림을 아직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 모습이 어떻든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받아드리기를 그리고 그런 연습의 시간이 필요함을 자주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여럿이 함께 캠프에 있다 보니 어느 때보다도 그동안 내가 관계 맺는 방식들에 대해 돌아볼 기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변에 무심경한 저로서는 특히나 이런 시간이 낯설지만 중요한 장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은 이 여행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끝날지는 잘 모르겠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어쩌면 문을 열고 나갔더니 다시 제자리일까봐 걱정도 되고요. 그런데 또 제자리면 어떻습니까. 내가 나에게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이해하게 되었다면, 같은 길을 다시 가도 같지 않은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최근에 읽은 공지영 이라는 작가의 산문집에 '길을 잃고 헤매는 길도 길'이라고 한 글을 읽고, 눈을 깊이 감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헤매는 길에 서서 나를 찾고, 자신과 조금 더 가까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면 미술치료라는 초대에 반갑게 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미술치료사 이채리 선생님과 친절한 인터뷰 |

◎ 인터뷰 \_ 달로



**Q**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미술치료'의 매력 혹은 저력이 있다면요?

**A** 미술치료는 언어로만 하는 일반 심리치료와 달리 미술이라는 또 하나의 소통방법이 있습니다. 미술 작업을 통해 언어로 표현되지 않거나 표현되기 어려운 이미지, 혹은 인식하지 못했던 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예술치료에 비해, 미술이라는 영역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가장 익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Q** 미술치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그 과정에서 치료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미술치료에서 중요하다고 보다 모든 치료나 상담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치료나 상담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한 인간과 한 인간이 진실한 모습으로 만남을 갖고 그 속에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치료 과정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내담자는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 합니다. 이 때 치료사는 일관성 있고 정직하게 내담자를 만나야 합니다. 치료사는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제공함으로써 내담자가 안전함을 느끼고 그 속에서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 바라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Q** 치유 혹은 치료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건네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최근에는 심리치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하면서 저항감이 적어졌지만 여전히 "치료"라는 단어에 저항감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자신을 바라보고 변화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필요를 느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미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심리치료를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플 때, 나를 바라보고 싶을 때, 나의 삶을 이해하고 싶을 때, 내 삶에 전환이 필요하다 여겨질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만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미술치료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버려야 할 환상과 가져야 할 기대가 있다면?

**A** 치료를 받으면 자신이 엄청나게 변할 것이고, 혹은 큰 능력을 가질 것이라는 환상을 갖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 치료는 내 안에 있는 엄청난 힘을 발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다른 시각과 관점으로 이해해 가는 과정입니다. 또한 치료과정은 내담자와 치료사가 함께 작업을 해나가야 합니다. 치료를 "받는단"라는 말 때문인지 어떤 분들은 치료사 혼자서 내담자를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사 역시 치료과정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내담자가 자신의 삶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가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치료과정을 통해 엄청난 힘을 발견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안에 원래 있었지만 내가 모르고 있던, 혹은 힘인지도 몰랐던 능력을 발견하실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기와 자기 삶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기도 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Q** 미술치료에 솔깃한 사람들을 위해 접할 수 있는 통로를 알려주세요!

**A** 미술치료를 접하시는 방법은 교육, 워크샵, 치료 등이 있습니다.

교육은 미술치료란 어떤 것인지 이론적인 배경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최근 많은 사회 교육원과 대학원 등에서 미술치료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워크샵은 미술치료가 어떤 것인지 경험해보는 것에 목적을 두며 1회~4회 정도의 단기로 진행되므로 큰 부담 없이 참여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경험을 목적으로 하므로 치료적인 효과를 기대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치료는 내담자의 치유를 목적으로 합니다. 치료의 형태로는 개인치료와 그룹치료가 있습니다.

개인치료는 치료사와 내담자가 1:1로 만나서 내담자의 삶 전체에 대해 바라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룹치료는 치료사와 4~6명의 내담자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면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진행됩니다.

다양한 교육기관과 치료기관이 있습니다만 제가 문예아카데미에서 일하고 있는 관계로(\*^~^\*) 문예아카데미에서 제공할 수 있는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예 아카데미에서는 1년에 1회씩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이론 교육과정은 4학기이며 이 과정을 수료하면 실습 과정을 들어갑니다. 실습은 그 동안의 공부를 바탕으로 직접 내담자를 만나서 치료를 하며 이 과정을 슈퍼바이저가 감독합니다. 기간은 2학기입니다.

매달 초에는 각 달의 주제에 따라 4회기의 워크샵이 진행됩니다. (금요일 오전, 혹은 오후)

각 달의 주제에 따라 월 1회로 오픈 스튜디오도 진행합니다. 오픈 스튜디오는 그 달의 주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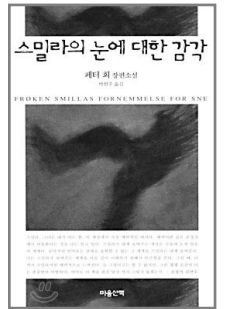
본격적인 치료를 원하시는 분을 위해 개인 치료나 그룹치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예아카데미 홈페이지(<http://www.myacademy.org/>)를 방문하시면 더욱 다양한 정보와 신청 경로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연락처 02-739-6854~5) ☎

\* 이재리 선생님은 현재 민예총 문예아카데미 미술치료 스튜디오 전임 치료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 공포를 거부하는 여자를 만났다.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

◎ 본 상담소 회원 당고



## Smilla's Sense of Snow

“나는 공포를 거부했다. 겁을 먹는 것이 싫었다. 공포를 없애는 길은 단 하나다. 수수께끼 같은 공포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길.”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 중에서

그린란드 출신의 사냥꾼 어머니와 덴마크 출신의 의사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서른일곱 살의 독신녀 스밀라. 수학과 과학에 능통하며 눈과 얼음에 대해 아주 특별한 감각을 지니고 있는 그녀는, 가깝게 지내던 이웃집 소년 이사야의 죽음을 계기로 목숨을 건 위험한 모험에 뛰어들다. 오직 그녀 자신만의 힘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추리소설인 관계로 자세한 줄거리는 일단 여기까지만. 재밌게 읽은 책일수록 모임을 하러 가는 마음은 두근 반 세근 반이다. 이 책이 뿜어내는 엄청난 마력은 오직 주인공 스밀라의 독창적인 캐릭터에서 발생한다. 다른 치유 소모임 친구들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우리의 이야기는 온통 스밀라에게 집중되었다.

"스밀라, 진짜 멋지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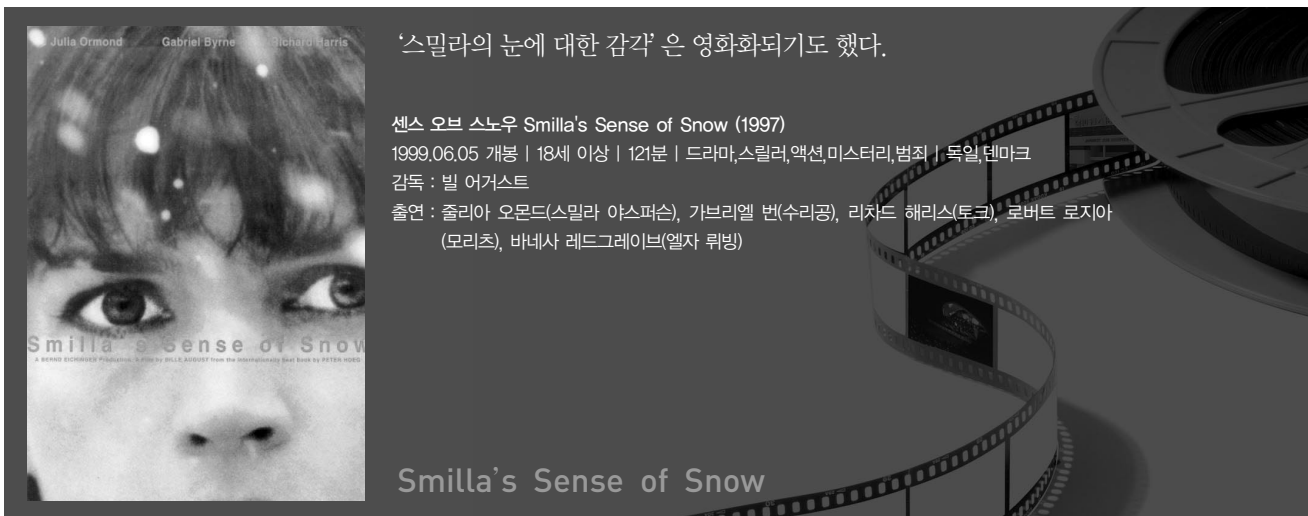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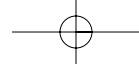
"완전 멋있어. 가장 놀라운 건 그녀에게 두려움이 없어 보인다는 거야. 고독을 아주아주 좋아하고,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잖아. 특히 싸움을 잘한다는 거."

"그렇지. 몸을 써서 싸우는 데에 주저함이 없다는 게 신기해. 보통 여자들은 폭력을 당하지 않더라도 미리 당할까 봐 겁을 먹잖아. 맞으면 어떻게 하나 두렵고 걱정되고 공포스럽고. 근데 스밀라한테는 그런 기색이 없어."

"그게 과연 가능할까? 스밀라는 왜 그렇게 겁이 없지? 튼튼해서? 무술이라도 배운 건가? 자기방어훈련?"

"단지 육체적인 힘이 세기 때문은 아닌 것 같애. 책에도 보면 스밀라가 거구도 아니고 가냘





프다고 나오잖아. 스밀라가 좀 더 특별한 건 마음 자세 아닐까? 맞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든지 반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잖아, 머릿속으로 말야. '이번에 맞더라도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때려야지' 하면서."

그렇다. 스밀라의 가장 큰 매력은 두려움 없이 행동한다는 데 있다. 그녀의 우수한 두뇌와 침착한 판단력, 그리고 가냘픈 몸이 그녀를 생각하지 않고 머무르거나 뒤로 내쫓게 만들 것 같지만, 실상 그녀는 전혀 그렇지 않다. 축적된 지식을 이용해서 생각하고 결단력 있게 판단하며 날쌔게 움직인다. 맞아도 쓰러져도 폭력과 음모가 닥쳐도 상대방을 거침없이 공격해댄다. 보고 있으면 조마조마하지만 또 한편으론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다.

"난 남자 작가가 써서인지 어쩐지 주인공이 여자 같지 않다는 생각도 하게 돼. 스밀라가 육체적인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끼지 않는 것, 너무 냉철하고 건조한 것 등이 남성적이라는 느낌도 드는데."

"그렇지만 실제로 이런 여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 오히려 여자는 감정적이고 따뜻하고 공포에 질려 있고, 뭐 이런 설정이 더 억압스럽잖아."

"스밀라는 굉장히 복잡미묘하고 다양한 내면을 가진 여자인 것 같아. 왜 결혼하지 않느냐고 묻고 자신의 결혼생활을 호소하는 기혼녀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지만 그들에게 동정과 연민을 느끼기도 하잖아. 또 스스로 항상 패배자들에 대해서는 마음이 약해진다고 고백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스밀라를 보고 있으면 자기가 잘난 만큼, 또 두려움이 없는 만큼 정이 없고 냉정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음, 그렇지만 동정심이 있잖아. 약자를 도와주려 하고. 그러니까 이사와와 관련된 죽음의 음모를 파헤치려는 거잖아. 한 순수한 소년의 부당한 죽음에 대한 분노."

"그건 애정이나 동정심이 아니라 정의감 같다는 생각이 들어. 뭐랄까, 스밀라는 결국 사랑 같은 건 믿지 않고 연인 비슷했던 수리공과의 관계도 나중에 가차 없이 잘라버리잖아."

"그건 수리공이 찌질한 남자였으니까 그렇지!"

"그건 그래. 하지만 실제 스밀라랑 만나게 된다면 나에게서는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고 냉담하게 대할 거란 생각을 지울 수 없어서 좀 서운하고 무섭고 그런걸."

"글쎄. 너무 집요하게 집적거리지 말고 아마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스밀라가 알아봐주지 않을까? 스밀라한테는 그런 걸 알아보는 눈이 있을 것 같은데……."

어지간히 스밀라에게 반한 우리는 어느새 어떻게 하면 스밀라에게 스물스물 다가가 그녀와 친해질 수 있을까를 궁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깨달으니 좀 구차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이렇게까지 해서 스밀라 마음에 들어야 하나?

"또 스밀라는 애정이나 성욕을 드러내지 않고 무성애자처럼 느껴질 만큼 건조한 구석도 있지만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한 부분이 많아."

"맞아. 소년인 이사가가 자기 옆에서 자면서 발기되는 것이냐? 흥분하는 것에 대한 묘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기 자신의 마음도 섬세하게 드러나 있어."

"그리고 성행위를 묘사한 것도 굉장히 색다르고 신기했어. "나는 그의 귀두 속 가는 틈을 열도록 하여 내 클리토리스를 안에 밀어넣고 그의 몸속으로 들어갔다(p. 262)." 이 부분을 보고 보통은 항상 삽입을 당하는 것 같아 수동적인 기분이 드는 여자가 성행위에서 능동적으로 행동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실제로 이게 가능한지, 도대체 어떤 기분인지 궁금했어."

궁금하고 생각해 보고 싶고 그녀처럼 해보고 싶은 것들이 어디 그것 하나뿐이라! 스밀라. 이 행동하는 주체, 이지적이고 고독하며 두려움 없이 몸으로 부딪혀 싸우는 여성, 참을 수 없을 만큼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여성에 대한 많은 궁금증과 부러움, 연모의 정을 뒤로 한 채 시간 관계상 우리의 모임은 막을 내렸다. 우리 안에도 어딘가 스밀라와 닮은 구석이 있음을 어렵게나마 감지하면서. ☹

#### 여성소설 읽기 모임

성폭력 피해, 치유, 여성주의적인 삶을 고민하는 치유소모임으로 출발해, 여성학 세미나, 춤 세라피, 비폭력 대화, 달리기를 통한 명상을 통과했으며, 최근에는 여성소설을 읽으면서 여성들의 새로운 삶에 대해 열심히 상상하고 있는 중. 그동안 레즈비언 역사 스릴러 『핑거스미스』를 통해 레즈비언의 삶과 사랑에 빠졌고, 『제인 에어』를 로체스터의 미친 부인으로 나오는 버사 메이슨의 관점에서 새롭게 쓴 『Wide Sargasso Sea』를 통해 가부장제하에서 타자화된 여성을 보기도 했다. 이밖에도 『웨하스』, 『어둠의 왼손』, 『탕헤르의 여인, 지나』 등 여러 소설을 통해 여성의 다양한 삶을 모색하고 있다.





## 2.21 『성폭력, 법정에 서다』 출판기념회

2년여의 기획 기간을 거쳐 드디어 『성폭력, 법정에 서다: 여성의 시각에서 본 법담론』이 출판되었습니다. 서울여성플라자 NGO 센터에서 열린 이 출판 기념회에는 저자 8명이 참석하여, 글의 주제와 취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책에는 성폭력문제와 관련한 법의 영역에서 주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점들과 변화가능한 지향점들을 찾는 작업이 담겨 있습니다.

## 2.22/4.26 신규회원오리엔테이션

2007년을 맞이하여 격월로 열리는 신규회원오리엔테이션이 2월 22일과 4월 26일에 있었습니다. 회원님들과 활동가들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앉아 즐거운 소통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4월에는 상담소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 동국 회원님의 화려한 무용담을 들려주게 되고 서로의 연애상담으로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다음 오리엔테이션에도 신규 및 기존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2월 『성폭력피해생존자를 위한 법률지침서』 발간

그간 법률지원 활동을 통해 축적된 우리 상담소의 경험을 토대로 법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정보 및 성폭력 사건의 법적 처리 절차와 권리를 알기 쉽게 정리한 새 법률지침서를 발간하였습니다.

## 3.4/3.8 3.8여성의 날 맞이 행사

3월 4일 일요일에 있었던 3.8한국여성대회의 시민난장에 참여하여 성폭력 가해자 이혼 전 시의 신로 시장의 명예훼손 역고소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거하여 서명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월 8일 여성의 날에는 '3.8세계여성의날 기념 반전평화여성행동 여성단체 기자회견'에 함께하여 전쟁과 폭력에 대한 반대의 메시지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 2.3,4,5월 말 성폭력조장하는 대법원판례바꾸기운동 \_ 8차·9차·10차·11차 자료집 발송

8차 자료집에서는 이 운동의 첫번째 주제인 '최형의설'에 대한 다각적인 비판을 이어나가는 동시에, 사회적 문제의식이 높지만 법적 해결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흡하지만 한 '아동성폭력에 대한 장장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9차 자료집에서는 아동성폭력 사건의 법적 해결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자 시급한 과제인 아동의 증언능력과 증언의 신빙성 문제를 다루었고, 10차 자료집에서는 성폭력피해아동의 진술에 대한 판단기준을 살피는 것과 동시에 아동성폭력사건지원을 통해 본 수사 및 재판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11차 자료집에서는 비장애인 중심의 성폭력 판단기준을 비판하는 판결·비평이 '최형의설' 비판과 함께 실렸습니다. 아울러 8차 발송부터는 『서울시여성발전기금』의 지원을 받게 되어, 기존의 200여 명에서 800여 명의 법조인으로 확대하여 보내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 3.28 3월 월례포럼 : 한미FTA 협상을 계기로 살펴보는 무역자유화, 그리고 젠더결과

우리 상담소 국제재무위원이자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소 연구교수인 문경희 선생님의 발제를 통해 무역자유화의 젠더결과와 무역자유화 만능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편견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흥미로운 발제내용 덕분에인지 모두들 열심히 들었고, 이어 열린 질의응답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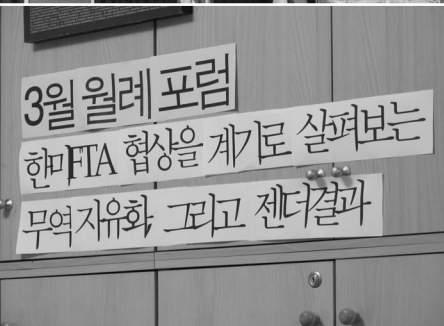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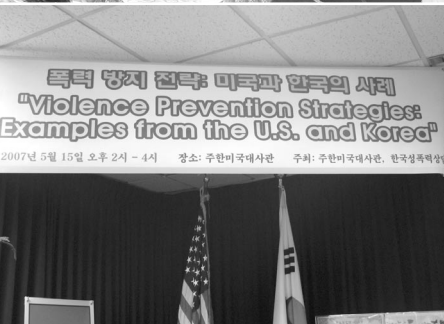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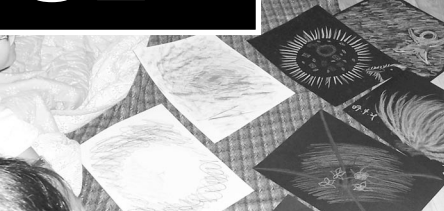
## 4.5 '하담 3년, 돌아보기' 하담이관식

본 상담소에서는 지난 3년 간 운영해 온 성폭력피해생존자 자립지킴이공동체였던 '하담'을 다른 단체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운영주체 '고양여성마동회'와 함께 또 다른 출발을 하는 하담의 이관식이 이 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담의 지난 3년을 성찰하고 중장기발전 및 자립지킴이공동체로서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다른 곳에서 다른 단체와 함께하지만, 앞으로도 '하담'을 많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4.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방문

공판중심주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성폭력운동단체들이 연대하여 여성폭력 피해생존자 지원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보는 개정안의 문제점과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정보권 및 참여권 보장, 여성폭력 피해생존자들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구금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 위험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뭔다! 상담소



## 4.17 아동성폭력 관련 검찰총장 면담

아동성폭력피해자부모모임(미모사)의 회원들과 함께 검찰총장을 면담하고 관계자와 함께 한 자리에서 어린이 성폭력 피해 수사과정의 문제점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 4.18 형법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공동주최

이날 오전 9시,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지난 2년여 동안 여성인권법연대회의와 함께 준비해 온 형법개정안의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발의는 임종인 국회의원이 함께해 주었습니다.

## 4.18 인도네시아 공무원 내방

인도네시아 고위공무원 14명이 한국의 여성단체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 상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상담소의 활동에 대한 발표를 듣고 한국 사회의 성폭력 문제와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많은 질문을 해 주셔서 열띤 이야기가 오고갔습니다.

## 4.20~21 상근활동가 MT

가평 '바람과 물 연구소'로 MT를 다녀왔습니다. 핸드폰 연결도 되지 않는 곳에서 여유로운 한 때를 보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 4.23~5.4 25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2주 간 여성주의 상담을 지향하는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 교육이 5월 4일 상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30명의 수료생이 배출되어 전국 곳곳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4.25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758차 수요시위

758차 수요시위를 우리 상담소에서 주관하였습니다. 이 날에는 극단 '나비'의 특별공연이 있었고, 김원웅 국회의원과 국제엠네스티의 김희진 국장, 강경구 교수 등이 연대발언으로 함께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 4.25 '작은말하기', 그 첫 이야기

성폭력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를 지지하고 치유를 도모하는 말하기의 장,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가 올해에는 연례적인 대회를 넘어 월례적인 일상적 말하기의 공간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리는 '작은말하기'의 그 첫 이야기가 4월 25일에 시작되었는데, 경험과 생각을 나누고 치유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 5.15 주한미국대사관 공동 간담회 개최

5월 15일 우리 상담소는 주한미국대사관과 공동으로 '폭력방지전략-한국과 미국의 사례'의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전문가로서 미국 콜럼비아 특별구 검사와 변호사를 자냈고, 현재 주한영사로 부임하고 있는 레나 레빗(Lena Levitt) 영사와 우리 상담소 이명경 소장의 발제 및 전체토론을 통해 양국의 현황 및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적인 여성폭력방지 전략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 5.16 욕망찾기 초급과정 시작!

내 몸을 돌볼 의무가 있고 내 욕망을 실현 권리가 있는 우리, 우리 여성들의 욕망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실행하는 욕망찾기 초급과정이 5월 1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30대 비혼·미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10회 진행되고요, 다가오는 8월에는 30~50대 기혼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 5.19 여성주의 자기방어 훈련 \_ '당신의 시선을 넘어서'

몸훈련을 통해 10대 여성의 성인지적인 자립과 성장을 실행하는 10대여성 다른-몸-되기훈련 프로그램이 이날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다양한 몸-체현 프로그램과 무예훈련, 지리산 중추 등을 통해 어떻게 다른-몸이 되어갈지 기대해 주세요.



## 자립지지공동체 ‘하담 3년 돌아보기’

◎ 전 하담지기 모모

2004년 3월 16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하담 열림식이 모임터에 이루어지면서 공식적인 하담운영이 시작되었다. ‘하담’은 ‘하늘을 날다’, ‘하늘을 담는다’라는 뜻을 담아, 성폭력피해생존자가 자립을 위해 자신의 공간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자립공동체로 의미를 갖고 시작하였다. 열림터 10년 운영 과정에서 장기자립공동체에 대한 필요성은 매우 절실했다. 그러던 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이를 현실화할 수 있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담은 본 상담소에서 자립지지공동체로서 여러 시도와 배움의 장이 되었다. 상담소는 하담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하며 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담이 더욱 발전하길 바라며, 2007년 3월, 하담의 해와 달, 별을 다른 하늘로 옮기기로 결정을 하였다.

하담의 평가는 어느 한 부분을 분리시켜 설명하기가 어렵다. 3년 동안의 시행착오는 누가 하담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하여 일상 지원까지 연결 고리를 형성하고 있었다. 3년 동안의 평가와 고민을 이곳에서 함께 나누고자 한다.

### ‘하담’ 상에 대한 혼란 | ‘지향과 현실 사이에서’

2004년 하담 운영 첫해를 지나서야, 새로 개척한 ‘하담인’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활동가들은 “누가 하담인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들을 갖고 있었다. 그 현상은 자연스럽게 하담 운영의 혼란을 가져왔다. 하담지기의 경우에는 하담설립의 취지에 맞게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독립 가능한 여성에 초점이 있었다. 사건을 지원하는 활동가들의 입장에서서는 당장 수요가 있는 층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아쉬움을 많이 표현했다. 열림터에서는 갈 곳이 없는 성인 피해생존자를 어디로 보내야 하나고 반문하였다.

이는 사회전반의 문화적 코드와도 맞닿아있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정책이나 서비스체계가 최하위 계층 혹은 청소년 등의 보호가 필요하고 응급하게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맥락과 유사하다. 따라서 최상위층이라 불리는 계층 혹은 조금만 지원이 되면 혼자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계층(재산이 있거나 교육을 받은 성인 여성)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문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대단한 착각이자, 하담 설립취지를 망각한 논의였다고 생각한다. 응급한 사람들을 위한 쉼터는 이미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고, 우리는 다른 자립 공동체상을 꿈꾸었다. 하담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기 위해 조금더 완화시키고 다른 기관연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아보면, 하담인의 구성을 잘 이뤄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하담인이 누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담지기들은 좀 더 초기의 설립취지를 잘 살려 하담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결국 우리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였다. 우리가 하려고 했던 대상을 정확히 보고 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 사회 안에는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이 많다. 그리고 그 피해생존자의 유형은 사람 수만큼이나 다양하고 다르다. 하담이 처음 생길 때, 우리는 쉼터 형태가 다양화 될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기존에 운영해오던 열림터에서 그리고 위급하게 지원하는 상담소 활동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놓치게 되었다.

자립에 대한 각기 다른 상,

그 개념은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었다

자립에 대한 상, 변화의 지점

자립에 대한 상 역시 “하담인이 누가 될 수 있는가?”라는 위의 질문과 유사하다. 어떤 이에게는 자립이 경제적 자립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 어떤 이에게는 경제적 자립보다는 심리적 자립이,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자립이라는 것 자체가 성취되기는 어려운 추상적인 것이라는 의견 등으로 각자 나뉘었다. 하담 3년을 돌아볼 때 하담 자립에 대한 상의 변화는 3가지 지점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생활전반의 자립, 특히 심리적 자립에 강점을 두어 하담인들의 독립적 생활에 많은 초점을 두었다. 두 번째 시기는 경제적 자립의 초점을 맞추는 시기였다. 2004-5년 입소하여 일상적 자립과 직업훈련을 통하여 꾸준한 자립을 하고 있는 하담인들에게 경제적 자립에 대한 중요성을 심어준 시기였다. 세 번째 시기는 하담인들이 꿈꿀 권리를 회복하고 가장 기쁜 일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지난 2년간의 하담운영을 통해 2006년부터는 적절한 하담인들을 받고 하담이 지향하는 자립에 대한 상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시기였다.

자립과 유사한 단어는 주체성일 것이다. 자립의 변화는 끊임없이 변해왔지만 하담 3년 운영의 핵심에는 하담인의 ‘주체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 따라서 하담생활이 자신들의 능력과 의지로 조정될 수 있도록 여지를 많이 주었다. 이에 대해서도 두 가지 다른 평가를 할 수 있다. 우선 첫째는 주체성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하담인들의 편의를 봐주면서, 오히려 주체성을 상실 하게 하는 역효과를 주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하담에 적절하다고 판단한 다른 하담인들에게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자신의 욕구에 따라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자립을 준비해 가는 하담인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공간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 역시 하담인 선정의 문제로 돌아보게 된다. 또한 당장 드러난 성과가 없다고 하여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도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 비록 주체적 요구가 중심이 되어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결과에 대해서 피해생존자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통제하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시스템으로 하담인들이 시행착오를 겪었다 하더라도, 그 역시 그들이 감당해야 할 과정인 것이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 자립에의 독려를 위한 공동체로서의 하담 정체성은 운영과정 중에 생존자와 하담지기, 그리고 그 사회적 분위기가 함께 만들어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하담인 중에는 분명 보호가 필요하거나 정신과 치료까지 필요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담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아무런 대처도 해줄 수 없었다. 따라서 다른 하담인들에게도 그리고 보호가 필요했던 사람들에게도, 모두 버거운 하담생활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2005년부터는 하담 입소를 의뢰할 때, 신중해줄 것을 열림터나 상담팀에 제안 하였고 조금씩 상황은 호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에 대한 불안하고 불편한 감정은 계속해서 남아 있었다.





### 반성폭력운동에서 쉼터운동의 한계와 성과

반성폭력 운동으로 시작한 여성운동에서 본 상담소는 다양한 운동방식을 띠고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어느새 16년 이란 시간이 흘러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이슈를 다루는 주요한 단체 중 하나로 활동하고 있다. 하담운영의 시작도 한국사회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시작할 수 있었다. 하담은 앞서 언급한 대로 생존자지원 체계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고 있었다. 협소 했던 생존자지원체계의 지원 대상과 내용의 폭을 넓혀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다양한 지원의 필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유의미한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상담소 운동 방식에 대한 끊임없는 갈등과 문제제기가 있었다. 생존자지원체계의 강화에 따라 성문화변화운동의 비중이 자연스럽게 축소되었고, 또한 국가 지원의 비중이 그만큼 증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쉼터운동은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운동방식이다. 우선 생활인들의 생존권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의 가치만을 내세워 생활을 꾸릴 수가 없다. 당장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걱정과 현실적으로 닥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여러 가지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에서 쉽지 않은 것이 쉼터 운동이 갖는 특성이다.

상담소 운영에는 정부와 대립을 할 때도 우리의 의견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융통성을 활용할 수 있지만, 쉼터는 당장의 불이익의 몫을 생존자들이 겪게 되므로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운동단체에서 쉼터의 비중이 너무 커져 버리면, 그 단체의 운동적 자율성이 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본 상담소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담 이전에 이미 열림터라는 단기보호쉼터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그와 유사한 조건의 하담을 또 운영하는 것은 그만큼 운동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안은 채 출발한 엄청난 결정이었다. 필요라는 당위성에 의해 시작했지만, 본 상담소는 3년 만에 결국 이관을 결정하였다.

쉼터 운동의 한계로 인한 이관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담소는 '하담'을 3년 동안 운영해 왔다. 하담 3년의 지난 활동을 돌아보며 상담소는 어떤 성과를 이루어 냈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했다. 앞에 제시한 수많은 시행착오와 짜디짤 평가에도 우리는 상담소에서 '하담'을 개소하고 이관하기까지의 3가지 중요한 성과를 찾아낼 수 있었다.

#### Ⅰ 여성주의 쉼터로서의 정체성 확립 Ⅰ

많은 피해생존자들은 자신을 피해자로 명명하기 시작하면서, 스스로를 수동적이고 비극적인 희생자의 이미지로 각인하게 된다. 상담소는 여성인권운동과 상담을 통해 피해생존자들이 자신의 피해가 불평등과 인권침해라는 점을 인식하여, 주체적으로 새롭게 자신의 피해를 해석할 수 있는 생존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16년동안 지원을 해왔다. 또한 부설 '열림터'는 일반적인 사회복지서비스시설의 특성 외에 성폭력문제를 가부장제와 남성중심 문화의 극명한 산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여성주의 시각이 중심이 되는 쉼터를 운영해 왔다. 이러한 기반은 생존자들이 부당한 폭력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권리를 주장하며, 여성중심상담을 기반으로 피해생존자들이 주체적으로 성장 수 있도록 지지하는 '하담'의 핵심 가치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졌다.

#### Ⅰ 중장기 쉼터의 필요성과 법개정 운동 전개 Ⅰ

상담소를 통하여 1944년 '열림터'가 최초로 성폭력피해생존자 보호시설로서 개설하였다. 그 이후로 전국에는 16개의 성폭력피해생존자 보호시설이 개소하여 활동하고 있다. 2001년에는 전국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협의회가 발족하여 운영위원회 모임을 통해, 피해생존자의 권리 확보를 위하여 협의와 대책을 세워 여성가족부, 서울시의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에 정책제안을 수렴하도록 촉구하는 활동들을 해왔다. 이렇게 열림터 운영은 성폭력정책의 수립을 가



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현장의 목소리로 연결되어졌다. 열림터는 피해생존자들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장기시설로의 필요성과 여성 영역별 특성을 고려한 시설의 특화를 꾸준히 고민하고 정부에 제안해 왔다.


2004년, 그 고민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하담'이었다. 하담이 실체를 가지게 되면서, 관련부처에 현장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정부에 중장기 쉼터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자립지지공동체의 상을 제안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받았다. 그리고 현재 3월 20일 발의된(홍미영의원 대표발의)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에서 하담운영의 기반이 될 장기보호시설에 관한 법안이 포함되어진 상태이다. 이러한 성과는 하담이 독립 단체였다면 하기 어려울 수 있다. 16년의 역사를 가진 상담소와 부설로 존재 하고 있는 열림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담의 존재여부는 쉼터가 단순하게 개소하고 폐소 하는 문제를 넘어, 앞으로의 중장기쉼터의 존재여부를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Ⅰ 쉼터의 차별적 모델 제시 Ⅰ

'하담'은 피해생존자들이 지역사회 주거지역내의 일반주택에서 생활하며,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중장기쉼터의 성격을 가지고 한 개인의 경제적·심리적 자립에 초점을 맞추어 자립지지공동체라는 개념으로 피해생존자들을 지원하였다. 이는 하담이 타 단기쉼터와 차별성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쉼터 개발 및 지원의 필요성을 가지고 만들어낸 결과였다. 또한 기존에 일시적 보호와 사건 지원에만 급급했던 쉼터지원에,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었다는데 의미가 있었다. 13년 전 열림터가 새로운 모델을 시작으로 단기보호 쉼터가 지속적으로 생겨난 것처럼, 하담 또한 하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전국적인 자립지지공동체로서의 확대를 꿈꿀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하담, 새로운 비행을 향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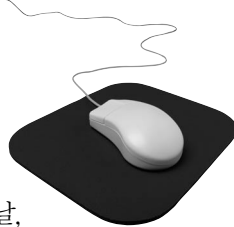
하담의 성찰을 통해 2006년 7월, '하담'의 새로운 운영주체를 찾기로 결정 하였다. 이후 여성주의 쉼터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중장기 쉼터의 필요성과 법 개정 운동을 함께 고민하며, 피해생존자 지원체계를 연계 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이관 단체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고양여성민우회'에서 몇 년 전부터 쉼터운동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몇 차례의 소통을 통해 고양여성민우회는 '하담' 운영에 대한 의지를 표현해 왔다. 그 후 본 상담소는 내부 논의 및 고양여성민우회와의 논의를 통해 고양여성민우회가 여성주의 쉼터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중장기 쉼터의 필요성과 법 개정 운동을 함께 고민하며, 피해생존자 지원체계를 연계 할 수 있는 지속성을 가지고 '하담'을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제 하담은 그 동안의 시행착오를 발판으로 삼아, 고양여성민우회에서 새로운 비행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하담운영 3년, 과연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가? 여성주의시각에서 대안적인 상을 제시했는가? 기반을 탄탄히 다져 왔는가? 등의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 있게 "잘했다"는 평가를 스스로 할 수 없음에 마음이 답답하다. 돌아보면 안 된 일만 더 도드라지고 아쉬운 점만 가슴 아프게 보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담 이관을 하면서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다음 운영 주체는 가능한 적게, 작게 마주하길 바란다. 앞으로의 하담은 이를 발판 삼아, 더욱 빛나기를 바란다. 



## 25기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이산



따뜻한 봄기운과 제법 매서운 바람으로 날씨가 매일매일 달라지던 봄날, 25기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이 열렸다. 상담원교육은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두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6시까지 진행하였다. 총 30명의 교육생 중 28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현재 수료생 중 9명이 실습 교육을 시작하였다.

홍대부근에 있는 서울여성노동자회 교육장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교육 첫날 교육장 바로 앞 골목의 공사가 시작되는 바람에 급박하게 장소를 잠시 옮겼다가 이틀째부터 아예 다른 교육장에서 진행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 다행히 교육 2주 째에는 공사가 끝나 원래의 교육장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첫 주에는 장소를 구하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장소 사정에 의해 커리큘럼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진행자는 물론이고 교육생들에게도 큰 불편을 겪었지만, 그래도 모두들 금새 마음을 다잡고 교육에 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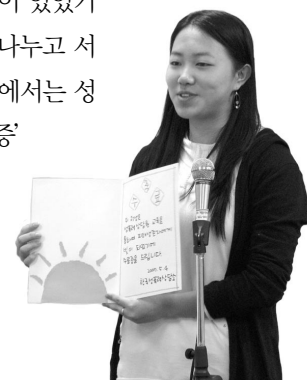


report & membership

2주간의 교육을 통해 성폭력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다. 듣기에도 바쁘게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토론도 하고, 실습도 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힘든 일정이었지만 교육을 채웠던 다양한 스타일의 멋진 여성주의자 강사들과, 열띤 질문과 모둠토론을 벌이는 교육생들의 열정이 뽀뽀한 일정을 알차게 만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교육생들의 배경이나 참여 동기, 입장은 모두 다양했다. 그 차이를 몸으로 실감하고 때로는 입장의 충돌로 어려운 상황을 겪기도 했다. 충분히 설명하고 토론하기엔 어딘지 모르게 시원스럽지 않은, 언어화되지 않은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때로는 마음과 생각이 통하는 교육생끼리 짬짬이 대화도 자주 나누고 서로를 응원하면서 좋은 친구가 되어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마지막 날 수료식에서는 성폭력상담원으로 활동할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이미지를 담아 '나에게 주는 수료증'을 만들었다. 색지, 펜, 크레파스 등으로 자유롭게 수료증을 만들어본 뒤 각자의 경험과 함께 그 의미를 나누며 서로를 축하해 주는 시간이었다.

이제 실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실습을 마치고 상담자원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상담소에 더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더욱 활기가 넘치게 될 것이다. 앞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될 25기 상담원선생님들께 큰 박수와 응원을 드리고 싶다.



서평 review / 들고나기

### 들고나기



#### 안녕하세요?

2년 남짓 수다가 다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받으려니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합니다.  
많이 힘들고, 내가 과연 내담자들의 편에서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갈등과  
부족함 때문에 수게 되었는데  
또 다시 그런 부담감을 안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 많지만 서로 공유하며, 힘들어하는 부분들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상담원 하진옥



## 10대 여성 다른몸되기 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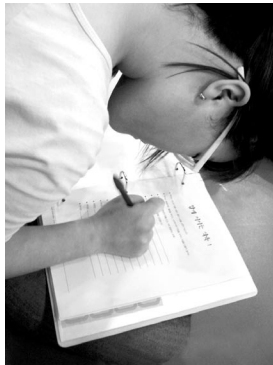
# 당신의 시선을 넘어서

◎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오매




2007년 5월 19일 토요일 오후, 노원구 어느 도장에서는 거친 열기가 가득 뿜어나고 있었다. 얼굴이 빨개지고 등에 땀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눈빛은 실새없이 공간을 날아다니는 공을 쫓고 어깨와 팔, 몸통은 여러저리 위치를 바꾸는 상대방을 마크하느라 힘이 가득 들어간 채 각도를 끊임없이 움직인다. 실내 핸드볼 경기가 한창인 것. 도장 양끝에 매트로 대체한 골대를 세워두고 공을 때려 넣어 점수를 얻는다. 한 팀이 득점하자마자 쉬고 있는 같은 팀 선수들의 환호가 쏟아지고, 곧 이어지는 상대팀의 공격. 속공 패스로 눈 깜짝할 새 득점을 추가하는 팀, 패스미스로 공이 흐르면 미친듯한 몸싸움으로 공격의 흐름을 뺏어오는 팀, 각자의 개성을 뽐내며 혹은 금세 상대 선수의 기술을 따라 구사하며 경기는 결과를 알 수 없이 열광의 도가니로 빠져들고 있었다.

2007년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은 “10대 여성 다른몸되기 훈련 - 당신의 시선을 넘어서”라는 타이틀을 걸고 이렇게 시작되었다. 10대 여성의 다른몸되기? 자기방어훈련은 위급한 성폭력의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호신연습이 아니었나?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겠다. ‘다른몸’은 자기방어운동이 도달하고자 하는 지향이 되기 탈출이나 성폭력 상황 모면에 있지 않음을 표현한다. 여성스러운 몸으로 여성다운 삶을 살라는 규범은 성폭력이 여성에게 위협하다고 강조하지만,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이 남성다움이라고 생각하는 문화 속에서 여성다움을 ‘유지’하며 성폭력 일상문화를 거부하라는 게 과연 가능한가? 가스충과 호루라기를 요란하게 권하지만 ‘반격가능한 몸’이 어떠한 몸인지 상상하고 실천해보라고 일러주지는 않는다. 정말 필요한 것은, 통금시간으로 제약하면서도 가스충만 없어주는 비약과 모순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대로 부당한 공격을 가려내고, 내가 해보고 싶은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시도하며 나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판단과 대우를 온갖 방식으로 제압할 수 있는 목소리와 기운, 자기신뢰, 노하우를 갖게 되는 것이다.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이 자유롭게 운동장에서 체력을 키우고, 몸으로 움직이는 즐거움과 활력을 알고, 공포나 두려움의 제약 없이 누구의 일방적인 도움을 필요치 않고 마음껏 활보하고 주변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만들고 진로를 찾고 세계를 여행하고 마음을 키워나가는 것! 그래서 ‘다른 몸’이다. ‘다른 몸’이 되는 것은 ‘어떠어떠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정해놓은 어떤 모델을 향해 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끊임없이 찾고 만들고 비끄러져가는, 그 ‘어떠어떠해야한다’는 규범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과정중의 작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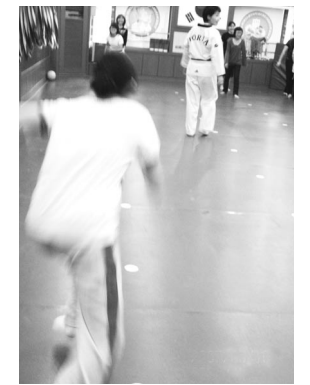


출구도 함께 찾아가보게 될 것 같다.

세 달간의 프로그램은 이렇다. 개인이 꾸준히 매일 지속하는 무예, 격투, 혹은 다른 종목의 몸훈련이 기본이 된다. 각자 이름으로 웹카페에 게시판이 개설되어 있다. 이곳에 각자의 수련일기를 쌓아나간다. 중간에 과제도 있다. 같은 도장에 다니는 여성수련생을 인터뷰하거나 그 도장 혹은 그 무예종목이 정해둔 규칙이나 사상을 자신의 생각으로 해설, 해석해본다든지, 관장이 살아온 인생을 인터뷰해본다. 게시판에는 각자 멋진 선수 인터뷰 기사나 나누고 싶은 정보를 올려둘 수도 있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변화를 관찰하며 댓글로 격려하고 예리한 조언을 나눈다. 또 한 축의 프로그램은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인데, 다양한 몸체험과 지리산 중주훈련,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몸을 적용해보는 ‘자기방어 컨설팅’, 다른몸으로 살아가는 여성들을 발굴하고 만나보는 ‘다른 몸 여성만나기’다. 춤췄라피, 3m 물속도전(깊이 3m 풀장), B-girling, 한강근육탐사(자전거 로드) 등을 통해 다양한 공간을 느끼고 함께 다양한 모험에 도전한다. 지리산 중주훈련은 두 차례의 산행강의와 연습을 하고 함께 일정과 프로그램을 짜서 5박 6일동안 떠난다. 다른 몸 여성만나기는 여성이 일하고 살아가는 공간을 직접 방문하면서 그 여성이 살아온 여정은 몸의 변화와 함께 탐색해볼 것이다. 연애문화 속에서 다른 몸으로 살아가기, 가까운 사람과 관계 맺기, 10대 여성으로서 사회적인 제약에 도전하기, 몸에 대해 통찰하기 등의 주제로 진행되는 자기방어 컨설팅은, 물리적인 몸의 변화에 한정되어 ‘다른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변화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의미화하며 연결고리를 만드는 시간이다. 

다른 몸 되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신나는 모험이 시작되었다.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어 기대되는 우리의 실험과 도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고 있다는 것이다. 변화하는 영혼. 우리는 세상을 바꿀 것이다.

1) 프로그램에 참가한 10대 여성을 ‘소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한 활동가들을 ‘동가’라고 부르기로 함. ‘동가’는 활동가의 줄임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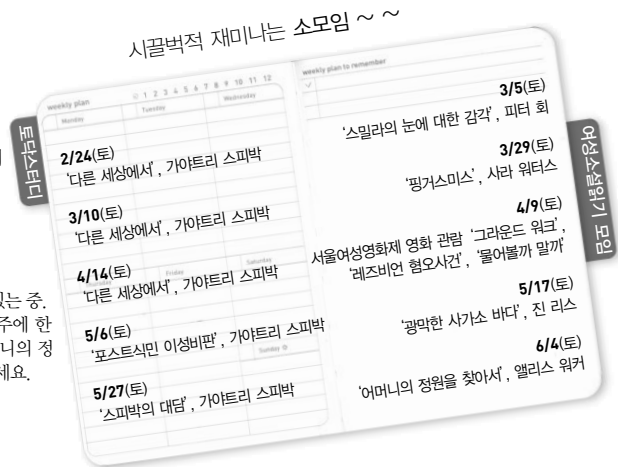
## [소모임 활동보고]

### ♥ 토닥스터디

토닥이들의 즐거운 공부기 계속 되고 있습니다.  
봄부터 시작된 가아트리 스피박의 읽기에 모두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에 폭 빠져 있답니다^^  
차분차분 꾸준히 계속되고 있는 토닥모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 ♥ 여성소설읽기 모임

여성소설을 읽으면서 여성들의 새로운 삶에 대해 열심히 상상하고 있는 중.  
소설읽기모임에서는 여성작가가 쓴 새로운 시각의 소설 세계로 격주에 한 번씩 빠져들어 갑니다. 오는 6월 4일, 저녁 6시 엘리스워크의 '어머니의 정원을 찾아서'를 읽고 만날 예정이니 관심 있는 회원님은 꼭 들러 주세요.



## [여름맞이 후원회비 업그레이드 캠페인]

회원님, 힘을 더해 주세요.

저희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더 큰 힘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회원님의 힘을 더해 주세요.

모니터 앞에서 기다리다 지친 활동가들

**지금 필요한 건... 속도~!!** 무한질주, 멈추지 않는 컴퓨터가 필요해요.  
회원의 기부 UP, 컴퓨터 UP!

왁자지껄 콩나물시루 소음 속의 상담소

**지금 필요한 건... 방~음~!!** 조용하게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상담실이 필요해요.  
상담실에 방음창과 방음벽을 지원해 주세요.

**후원회비 업그레이드!**

활동가들의 업무속도와 능력, 에너지를 UP!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드는 파워 UP!

기부 ~ UP, 기분 ~ UP!

기부UP!  
기분UP!

기부UP! 기분UP! 캠페인에 참여하시는 방법

본 상담소 홈페이지 [www.sisters.or.kr](http://www.sisters.or.kr)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 [따뜻한 사람들의 훈훈한 소식]

### ♥ 향기로운 사람 이효숙 책임상담원

매번 세계 각국의 향기로운 커피를 가져와 우리들의 코와 입을 즐겁게 해 주시는 이효숙 책임상담원께서 원두를 직접 갈 수 있는 커피밀과 커피를 뽑을 때 사용되는 특수 아트실버스텐주전자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요즘 이효숙 책임상담원께서는 커피공방 준비로 매우 분주하셔서 뵙기가 어려운데도, 두고두고 즐길 수 있는 원두를 계속 공급해 주고 계신답니다. 저희 활동가와 자원활동가, 상담원 선생님 그리고 방문자 모두 선생님의 덕택으로 향 좋고 맛 좋은 커피에 폭 빠져있습니다. 호강에 겨운 상담소 사람들은 다양한 의미를 실은 "선생님 이제 다른 커피 못 마시겠어요"라는 말을 읊조리며 즐거워 하고 있습니다.

### ♥ 풍성한 나눔 이수명 회원님

5월 초 갑자기 "택배요~"라는 말과 함께 쏟아져 들어온 엄청난 양의 고동어 자반과 고추장, 된장들... 사무실 여기저기서 들리는, "우와!" 놀라운 탄성, "고마운 분이시네. 나는 이럴 때 활동에 의미를 느껴... 하하", "근데 어느 분께서 이렇게 맛있는 자반과 음식을 주셨지.."  
궁금해 하는 그분은 바로 이수명 회원님이셨습니다. 이수명 회원님께서 열림터 친구들에게 주신 선물! 정말 감사합니다.

### ♥ 열림터 학습지도에 애쓰시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이영주 님(영어), 폴 님(수학), 지승경 님(영어), 전성희 님(영어)